

서울시, 설 연휴기간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연장

[칼럼] 예견된 분노 이제 어쩔 것인가.

서울시 단속 구간 : 한남대교남단 반포IC~양재 IC 구간

서울시는 설 연휴 기간 동안 버스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 관할인 경부고속도로의 버스 전용차로의 단속시간을 7시부터 새벽 1시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평소 서울시 관할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평소 07시~ 오후 9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설 연휴기간에는 휴일 시작 전날인 10일부터 연휴 다음날인 15일 오전 7시~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이에 따라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횡수만큼 중복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과태료 부과로 인한 민원항의가 폭주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고자 운영 시간 변경 정보는 2.10일 첫날 07시부터 고속도로 전광판에 표출되며 운영시간 확대에 따른 시민 안내를 위해 경부고속도로 주요 진입로에 임시안내 입간판 설치 및 방송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단속 적발 사례 중에는 전용차로 유형별 운영시간을 혼동하는 경우 외에도 실수로 진입했다가 차량 정체 등으로 차선변경이 어려워 빠져나가지 못하고 단속되는 경우도 많다. 버스전용차로에 잠시 진입했으나, 교통정체 등으로 빠져 나오지 못해 중복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구간마다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단속 적발시 횡수와 상관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오종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전용차로가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효과를 거두려면 운전자의 준법 의식



이 필수적"이라며 "단순히 운행구간 전자는 각별히 주의를 해주기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

전정부지로 급상승 하는 부동산 가격, 적을할 새도 없이 수십 번 바뀌는 정책에 83만호 건설이라는 정부 발표는 처방일까 대안일까. 서울시장 후보들은 본인 돈도 아니면서 너도나도 아이만 낳으면 현금공세를 생색내고 안팎으로 살벌한 경쟁의 끝을 알 수 없다. 연일 환자 발생수와 사망자수의 집계는 마치 국민의 현실과 미래를 좌우지 하는 기준 잣대 역할을 하면서 여차하면 급증할 수 있다는 불안감속에 너도나도 감히 토를 달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이러다 될 일 나지 싶은 염려와 그 어떤 대안이라도 속히 제시되길 기대하지만 백신의 신뢰는 국민들에게 그리 시원한 낭보가 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정부나 지자체는 설 명절을 앞두고 10만원을 주네 100만원을 주네 하며 일명 세뱃돈으로 민심을 달래 보지만 과연 현실성 없는 대책 마련에 점점 인내심의 한계선을 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주소다. 하란대로 방역지침 지켜도 배짱 영업하던 자들만 보란 듯이 손님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질서를 지킨 자만 바보 된다면 누가 줄을 설까. 방역지침 준수가 확진자를 줄였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고 추상적인 결과 치에 대한 경고만 이어지자 버티던 인내심이 바닥 드러났다. 지난 6일 정부가 비수도권은 영업시간을 한 시간 연장하고 수도권은 오후 9시 영업 제한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하자 결국 자영업자들이 들고 일어났다.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코로나가 시간과 장소 바라며 확산된다는 근거가 어디 있는가. 필자가 수차례 경고하고 지적했던 대목이다. 자영업자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일에 애 달래듯 사랑 하나 먹고 당분간 조용히 하라는 거냐며 분노의 도가니탕이 끓어 넘치기 시작했다. 현실적으로 9시와 10시사이의 1시간은 이른 바 피크타임인데 한참 매출이 올라가는 시간대에 맥을 끊어 놓는 것이나 진배없다. 정책을 세우는 자들이 영업을 해야 하야 그 심정이나 상황을 알지 책상머리에 앉아 잔머리나 굴리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고객과 업주의 인간적인 실랑이는 차라리 사람 사는 법에서 난다 할 것이다. 한잔만 더 마시자는 부탁에도 시계바늘은 9시를 가르치고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코 파라치의 감시 속에 업주의 분의 아닌 냉혹한 거절은 비현실적인 정책이 낳은 불편한 진실이다. 관료가 해야 할 일을 백성끼리 신고하도록 민민 갈등을 조장하고 안그래도 돈 없어 괴로운 상황에 과태료까지 물게 하는 작태는 서로 이간질 시키고 싸움불이는 것이나 진배없다. 일손이 모자라도 할 것이 있고 할 일이 있는 것인데도 어찌 이런 방역방침을 세우는 것인지 대해 누구 대가리에서 이런 발상이 나온 것인지 코로나가 지나가도 봉합되지 못할 국민 분열의 상흔으로 남을 것이

수원시 생활정보 '수원마을'에서 확인하세요

경남음악창작소 뮤지시스, 무명가수 꿈에 날개를 달다

전입 시민 위한 생활안내서 개정판 제작...거주지 및 시 홈페이지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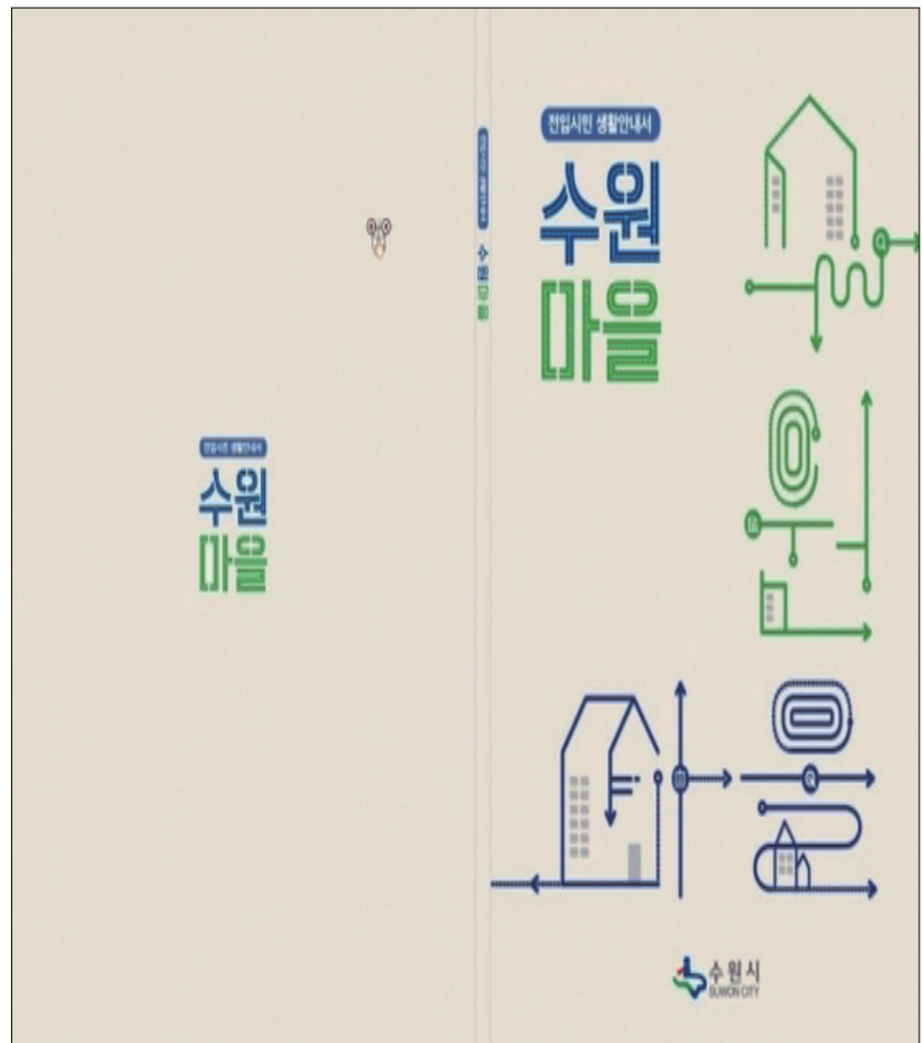
음반제작 지원, 공연지원,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등 사업 추진

수원시가 수원으로 이사 온 시민을 위해 일자리·복지·문화 등 다양한 생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생활안내서 '수원마을'을 제작했다. '수원마을'에는 전입 시민이 수원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하고 유익한 생활정보가 담겨있다. 총 103페이지로 구성된 생활안내서에는 행정 일자리·복지 문화·관광 스포츠 안전·건강 교통 환경 인문 등 8개 분야 91개 생활 정보를 수록했다. '행정' 분야에서는 각종 민원상담이나 생활 불편 접수 등 무엇이든 자유롭게 문의하고 전문상담사의 신속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수원시 휴먼콜센터, 무인민원발급기 현황, 무료법률상담, 시정 소식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SNS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일자리·복지'에서는 구인·구직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원시일자리센터·동 행정복지센터 일자리상담실을 비롯해 청년 지원 프로그램, 위기가구 대상 긴급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꼭 필요한 정보를 안내한다.

수원을 대표하는 주요 관광지과 문화시설을 볼 수 있는 '문화·관광' 분야에는 수원화성, 화성행궁 관련 정보와 수원시립아이스크림미술관, 수원 전통문화관, 수원박물관 등 다양한 시설을 소개한다. '안전·건강'에서는 수원시민이 예기치 못한 재난·화재 등으로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원하는 '수원시민 안전보험', 수원시 보건소·정신건강 관련 센터, 수돗물 안심확인제·우리 동네 수질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수원마을'은 수원시 홈페이지 '종합민원→전입시민안내'에 게시된 '수원마을 전입 시민 생활안내서 전자책'을 클릭하면 누구나 볼 수 있다. 또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박관자 수원시 시민봉사과장은 "수원시는 2015년 처음으로 전입 시민 생활안내서를 발간한 이후 매년 개정판을 내고 있다"며 "꼭 필요한 생활 정보를 엄선해 수록한 '수원마을'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음악창작소 뮤지시스의 '음반제작 지원사업' 선정 뮤지션인 정홍일 가수가 2월 8일에 방영된 JTBC "싱어게인" 파이널 라운드에서 2위의 영예를 차지했다.



정홍일 가수는 2번째 공연순서로 파이널 경연에 임했으며 그의 경연 마지막곡은 마그마의 '해야'였다. 그는 방송 1회 차에서 자신을 '정통 헤비메탈'이라고 소개한 바 있듯이 마지막 곡에서 본인의 색깔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곡을 선곡해 정면 승부했다. 그의 끓어오르는 태양과 같은 사투리는 심사위원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 온라인 사전투표, 심사위원 점수, 실시간 문자투표의 합계점수로 진행된 결승전에서 정홍일 가수는 심사위원 평가에서 80점 만점에 779점이라는 경이로운 점수로 1위를 차지했으나 최종 합산점수에서 2위로 밀려나 아쉬움을 남겼다. 정홍일 가수는 경남 마산에서 출생해 현재 김해에서 거주 및 음악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전 TOP10 명명식에서 그가 불렀던 노래인 '숨 실수만 있다면'은 '경남음악창작소 음반제작 지원사업'을 통해 탄생하게 된 곡으로 시청자와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은 바 있다. 이 외에도 경남음악창작소 뮤지시스는 그의 저력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과 경연 준비에도 협조해 왔다.

담양소방서, 소화기 패치로 전기화재 막는다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겨울철 전통시장 및 축사시설의 난방용품 등 화기취급의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전기화재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겨울철 특수시책으로 '불이는 소화기'를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이는 소화기'란 전기콘센트 등에 붙여 사용하는 것으로 100도 이상의 온도를 감지해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출하는 신종 소화기를 말한다. 이 소화약제는 인체에 무해하고 오존층의 파괴가 없는 친환경 물질로 오작동이 없는 것이 특징이고, 스티커형으로 부착 방법도 간단하여 다방면으로 효율성이 높은 제품이다.조상호 예방안전과장은 "간편한 자동소화기 패치를 통해 화재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설치 및 활용 범위를 점차 넓혀 화재로부터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전기화재 예방사업에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



그를 통해 화재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설치 및 활용 범위를 점차 넓혀 화재로부터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전기화재 예방사업에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 오종근기자

이진연 의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관계자 정담회 실시

“경기도는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허브가 될 것”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의원은 9일 도의회 제1정담회의실에서 청소년부모 가정의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와 청소년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이진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여성정책과·평생교육과·청소년과·주책정책과·건강증진과 등 총 6개의 집행부서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의회 여성가족전문위원실 등이 참석했다.

이진연 의원은 “청소년부모의 경우 원가정에서 완전히 분리되지 않아 아동수당, 주거, 어린이집 지원 등 모든 지원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었다”며 “태어난 아이를 키우겠다는 책임감 있는 우리의 청소년들을 외면하는 현실에 안타까워하며 지난 2020년12월 경기도의 조례를 제정 하였었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이어 “처음 청소년부모를 정의할 때는 ‘청소년’이 왜 아이를 키우느냐는 부정적인 의견들에 하루하루 답답해하며 두꺼운 장벽을 무너뜨리는 느낌이었으나,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이들을 위한 정책에 손을 들어주는 모습에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희망을 품어보고자 한다”며 “또한 경기도가 청소년정책을 마련함에 따라 국회와 타시도 역시 청소년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본 정책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생애 주기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가족을 이끄는 구성원’으로의 역할까지 다각도의 접근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에 경기도의 각 부서가 모두 함께 정책을 공유하고 도가 시·군의 허브 역할로 자리잡고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안내와 홍보가 철저하게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최정근기자

충남도의회 복환위, 장애인복지관 기능재정립 준비상황 확인

비회기 남부·공주 장애인복지관 찾아 사회복지서비스 재편 청취, 개선방안 모색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시대 변화에 맞춘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재정립 준비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비회기 기간 현장을 찾았다.

복환위 위원들은 9일 충남도 남부 장애인복지관과 공주시 장애인복지관을 차례로 방문해 사회복지서비스 재편 방안,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도는 같은 지역 내 위치한 도·시군 장애인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능 재편을 계획 중이다.

공주에 위치한 남부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연구·보급, 직업교육, 종사자 역량 강화 같은 핵심 복지서비스 역할을 수행하고 재할이나 보호 등 기초서비스 기능을 시 장애인복지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오인환 위원장은 “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기능재정립을 위해 많은 시간 도와 공주시가 함께 노력해 온 만큼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시설 이용 당사자인 장애인들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영란 부위원장은 “현재 남부장애인복지관 이용자들이 기능재정립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며 보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동일 위원은 “공주시 장애인복지관은 기능재정립 시 현 이용자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해 달라”며 “도와 공주시가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원호기자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 접수 창구 상시 운영

시민참여 확대 및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위해 4개 분야 제보 접수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오는 제69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 제보 접수 창구를 상시 운영한다.

제보 대상은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보조금 부당수령 및 예산낭비 사례 기타 시민 불편사항 등이다.

다만, 제보 내용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진행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근거 없는 비방 및 악의적인 루머,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접수 대상에서 제외

된다. 제보자와 제보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며 제보 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적극 활용하는 한편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의정 활동의 투명성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시민 제보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최재은기자

양민규 서울시의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위촉

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이 지난 2월 1일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국민소통특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정책과 관련된 지역의 여론수렴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운영되는 특별기구로서 각 분야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가진 지역의 인사들로 구성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어른 모니터링 및 의견을 수렴하며 지역행사 참여, 권역별 간담회 개최, 자율적 시도 모임을 갖으며 활동하게 된다.

최만식기자

양민규 의원은 영등포구를 지역기반으로 두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하며 수시로 주민과 소통하며 지역발전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은 “그 어느 때보다 소통이 중요한 이 시기에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에 감사하다”고 전하며 “현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세대간, 계층간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그 중요성과 무게감을 염두하며 위원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광수기자

조광희 도의원,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플랫폼 개발 성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 교통국·교통연수원으로부터 2021년 운수종사자 등에 대한 온라인 교육 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받았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운수종사자 및 도민에 대한 집합교육의 어려움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운수종사자의 법정 의무교육은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운수종사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지난 10월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운수종사자 교육 중단이 없도록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것”을 주문했고 더불어 운수종사자의 온라인교육 실시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

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교통연수원 지정조례’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조광희 의원은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가 우리 삶과 같이 간다고 본다면 생계와 직결된 운수종사자에 대한 온라인교육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제 막 시작된 만큼 집합교육에 비해 떨어지는 온라인교육의 효과를 어떻게 높일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어려워 교육을 받지 못했던 운수종사자와 도민들께서는 무료 온라인 평생학습 사이트를 경기도지식사이트를 통해 교육을 받으면 기존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서비스와 연동한 통합한 웹사이트에서 교육 이수 여부를 인정받게 된다.

최정근기자

남궁형 시의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촉

인천시의회 남궁형(더불어민주당·동구) 의원이 인천을 대표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로 위촉돼 중앙정부 특별 위원장으로 인천지역 균형발전 정부정책을 챙기게 된다.

8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민소통특별위원회로 전문성을 인정해 남궁형 의원을 위촉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정부의 핵심적 국정과제인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 약 10조7천억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운영 및 수립 등에 관한 사항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로 위촉된 남궁형 의원은 원광대학교 조빙교수 출신으로 현재 인천시의회 자치분권 특별 위원장으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지난 대선 문제인 대통령 후보 여의도 중앙선대본부 자치분권균형발전 팀장으로 대선 승리를 이끄는 등 대한민국 자치분권 균형발전에 이바지해 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궁형 시의원은 “대한민국에 직면한 문제인 지역 간 불균형과 지방소멸의 원인인 인구 감소 등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앞으로 자치분권에 기반을 둔 인천지역균형발전과 원도심 혁신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충남기자

www.wawa105sujin.com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우편번호 :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14222 광명시 시청로7 동신에이스텔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 부회장 박유식 / 사장 임석경 / 편집국장:최재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최수진

대표전화:1899-9659 e-mail:ekwk44@naver.com suji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치부:내선 (112) 문화부: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서울.가50146 사회부:내선 (113) 부화부: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제부:내선 (114) 오빠니언부:내선 (118)
대표전화 : 1899-9659 스포츠부:내선 (115) 지방부 :내선 (119)
편집국 : 02)2612-2959
팩스 : 02)2060-4147 구독신청,배달안내 : 1899-9659 구독료 : 월 15,000 1부 800원



청년당사자시각으로 더 나은 서울 디자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멤버 모집

서울시, 청년의 시각으로 더 나은 서울을 디자인 하는 민관협력 청년거버넌스 운영

서울시는 코로나19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재난, 성평등, 불평등 심화 등 다양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청년당사자의 시각으로 다각적인 사회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멤버를 모집한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심화되는 사회문제에 주목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정책제안, 이슈공론화 등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는 청년참여기구이다.

서울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만 19~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멤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정참여교육 이수 후 시민위원으로 위촉된다.

시민위원으로 위촉된 청년들은 더 나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정책제안과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서울시에 정책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청년시민위원들은 청년문제를 비롯해 미래대응의제까지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속의과정을 거쳐서 정책의제 발굴·제안 뿐 아니라 예산편성까지 서울 시정 전반에 걸쳐 참여하며 2022년도 청년자율예산을 서울시와 함께 편성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민관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대한민국의 청년정책을 선두했다.

이를 통해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 제정, 청년자치정부 수립 등 청년정책 제도 기반 마련에 주요한 역할을 했으며 청년수당,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 월세지원사업과 같이 청년당사자의 시각으로 다양한 신규정책을 제안하며 사회문제해결에 앞장서 왔다.

서울시와 청정넷의 이러한 노력을 통해 현재 111개 지자체에서는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했고 작년도 2월 4일에 청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명실상부하게 청년참여의 당위성을 확보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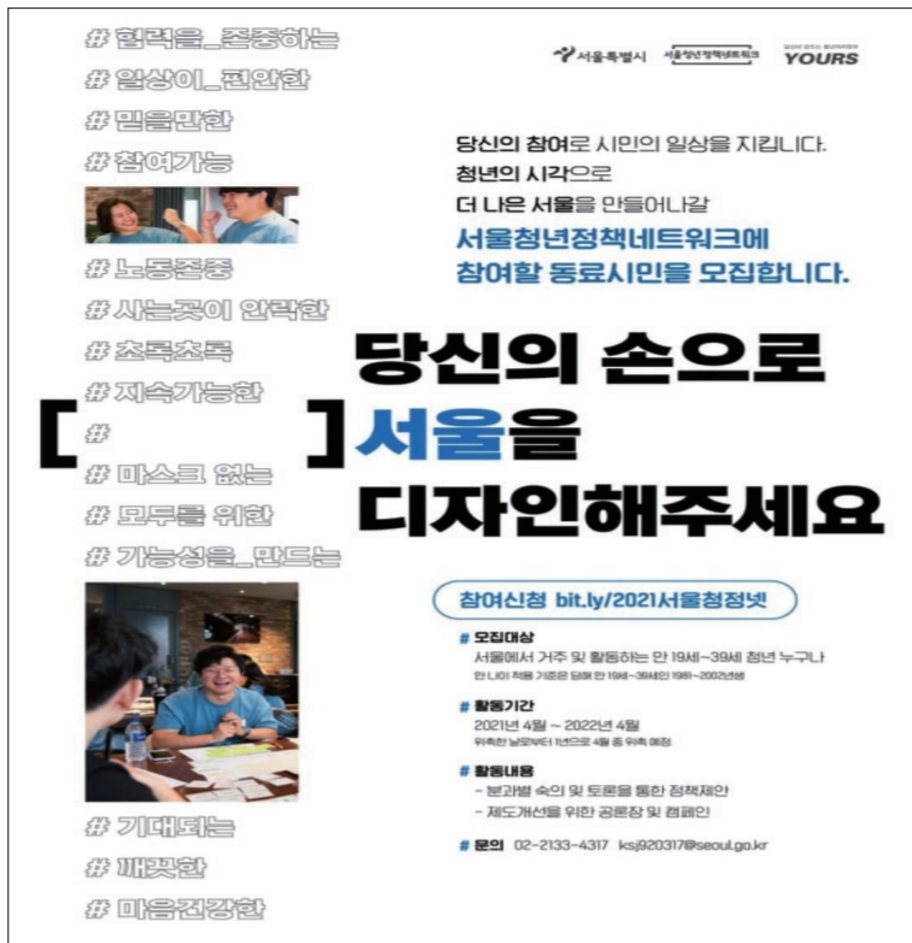
또한 서울시와 청정넷의 민관 거버넌스 파트너십을 통한 정책적 성공은 기초지자체와 정부부처가 정책의 사결정과정에 청년을 참여시키는데 마중물 역할을 했으며 서울시 청년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일조했다.

2021년도 청정넷에서는 '당신의 손으로 한 서울을 만들어주세요.'라는 슬로건 아래, 청년의 적극적 시정 참여 활동을 독려하며 청년문제를 넘어 다양한 세대와 공존하기 위한 미래의제를 다룬 예정이다.

금년 3월 시정참여기본교육과 의제별 워크숍을 시작으로 청년시민위원의 활동이 본격화되고 임기동안 시민회의, 분과위원회 등의 다양한 속의 과정을 거쳐 청년자율예산을 편성하거나, 제도개선이나 인식제고를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할 수 있다.

청년자율예산은 청년의 시정참여를 보장하겠다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의지로서 서울시 예산 중 일부를 청년들이 직접 편성하는 제도이다.

청년자율예산제를 통해 청년시민위원은 동료 시민위원 및 전문가와의 토론·속의과정을 통한 정책설계,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과정, 시



임팩트를 증명하는
일상이 편안함
마음편함
참여가능
노동정당
사는곳이 임팩트
촘촘속속
지속가능함
마스크 없는
모두를 위한
가능성을 만드는

당신의 참여로 시민의 일상을 지킵니다.
청년의 시각으로
더 나은 서울을 만들어내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에
참여할 동료시민을 모집합니다.

당신의 손으로 서울을 디자인해주세요

참여신청 bit.ly/2021서울청정넷

- 모집대상: 서울에서 거주 및 활동하는 만 19세~39세 청년 누구나 (만 19세 미만은 2021년 1월~2021년 12월 31일)
- 활동기간: 2021년 4월 ~ 2022년 4월 (유급휴가 신청은 2021년 4월 15일 이후)
- 활동내용: - 분과별 속의 및 토론을 통한 정책제안
- 제도개선을 위한 공론화 및 캠페인
- 문의: 02-2133-4317 ks@2037@seoul.go.kr

실국부서와의 협의·조정을 거쳐 시 예산부서에 편성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시민위원들은 조례 등 법령 근거 부족으로 당장의 사업제안이나 정책설계가 어렵지만, 가족구성권, 채식먹거리와 같이 사회적 쟁점사항이거나 우리사회의 발전적 과제로서 공론과 캠페인을 통한 제도 및 인식 개선을 요하는 과제를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다양 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아울러 2020년도 청정넷 청년시민위원들은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통해 내적으로는 민주적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었으며 외적으로는 거버넌스 파트너인 시·시의회의 협력적 관계를 공고히 구축하는 한편

242억원의 청년자율예산을 편성해 성과를 거뒀다.

서울시 김영경 청년정책관은 "서울시와 청년시민 간의 정책 거버넌스는 지난 8년 동안 전국을 넘나들며 대한민국 청년정책의 지평을 변화시켜 왔으며 더 나은 미래를 선도했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서울의 미래를 설계하며 우리들의 일상을 지켜나 갈 청년들의 참여를 기다린다"고 밝혔다.

참여신청은 2.8~2.28.에 신청링크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청년포털과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 이번 설까지만 힘내주시길.

이번 설까지만 마음만 전하소 그럼 우리 모두 연말엔 꼭 미소

인천광역시에는 설 명절을 맞이해 8일과 오는 9일 이틀간 일정으로 설 연휴 상환근무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관들을 방문해 격려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 민생현장 방문은 코로나19 예방과 아동·장애인 등 민생 관련 현업기관 등 사회 곳곳에서 시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업기관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이뤄졌다.

박남춘 시장은 지난 12월 212개 일반병상을 코로나19 병상으로 전환해 인천시민들의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준 인천적십자병원과 인천백병원을 찾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아울러 미추홀구에 소재한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관계자를 격려하며 "경찰 및 관계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몸이 누군가에게 고통 받고 다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배달 서비스를 시행하는 중구 푸드마켓을 방문한 자리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의 위기로 가장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미추홀콜센터, 도림119 안전센터, 도화지구대 및 장애인콜택시 콜센터 등을 방문, 설명절 근무 상황을 청취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설 명절이 될 수 있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남춘 시장은 "코로나 백신 접종이 초읽기에 들어간 만큼 인천시는 정부시책에 맞추어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 자문협의체 구성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설 연휴가 방역의 최대 고비인 만큼 이동과 여행을 자제해 주시고 더욱 철저한 개인방역에 시민 모두가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서울시 북촌문화센터, 비대면 설맞이 '세화 체험' 운영

북촌문화센터 등 서울 공공한옥, 설 연휴기간 방역수칙 준수 하에 관람가능

서울시 북촌문화센터는 신축년 설을 맞아 '세화 체험'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세화란 새해를 송축하며 재앙을 막아주는 동물, 인물, 글자 등을 그린 그림으로 한 해 동안 행운과 건강이 깃들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새해 첫날 주고받곤 했다.

주로 문짝에 붙이기 때문에 문배 또는 문화라고도 했으며 오늘날엔 민화의 범주로 분류된다.

설맞이 세시풍속 체험을 위해 북촌문화센터에서는 '우보천리'라는 문자도를 직접 꾸며볼 수 있는 '세화 체험 꾸러미'를 발송한다.

이번 체험 꾸러미는 북촌문화센터 시민자율강좌 문자도 강사와의 협업으로 제작됐다.

세화 체험 : '세화 체험 꾸러미'는 닥종이로 만든 전통 한지 위에 아교 포수" 마감한 수제 액자가 들어있다.

액자에는 소의 걸음으로 천리를 간다는 '우보천리' 문자도" 도안이 새겨져 있어, 도안에 따라 원하는 채색 도구로 자유롭게 색을 칠하고 꾸며 나만의 세화를 만들 수 있다.

신축년, 소의 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서두르지 않고 우직하게 나아가다보면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돌아오리라는 희망을 담았다.

체험 꾸러미 신청은 서울한옥포털 홈페이지, 북촌문화센터 사회관계망을 통해 8일 10:00~오후 6시까지 접수하며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문의는 북촌문화센터로 하면 된다. 한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지난 1월 20일부터 북촌문화센터를 비롯한 서울 공공한옥이 재개장했다.

이번 재개장은 방역수칙 준수 하의 단순 관람에 한하며 현장·대면 프로그램은 방역 여건을 고려해 추후 재개할 예정이다.

시설별로 정기, 연휴 중 휴무일이



달라, 방문 시에는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해를 넘어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은 여전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신축년 새해,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활소처럼 우직하게 나아가는 희망찬 설 명절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코로나 대응 빈틈없다 중랑구, 설 종합대책 추진

응급진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 총 77개소 운영으로 진료공백 방지

중랑구가 설 연휴기간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설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구민안전, 생활불편 해소, 소외이웃 지원, 명절불가 안정, 공직기강 확립 등 5개 분야 21개 사업을 마련하고 직원 569명이 24시간 근무해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에 나선다.

먼저, 연휴기간에도 선별진료소 3개소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하며 역학조사, 방역소독,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등 코로나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한다.

확진자 발생에 따른 병상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생활치료센터 2개소도 정상운영한다.응급진료체계도 마련했다.

설 연휴 응급진료기관 16개소 및 휴일지킴이 약국 61개소 등 총 77개소를 지정해 진료공백을 방지한다.

특히 녹색병원·동부제일병원은 24시간 응급진료를 실시하고 장승여성병원·메디덴스산부인과의원에서는 상시 분만이 가능하다.

자세한 운영현황은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중랑구 응급의료상황실에서 안내한다.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소외이웃도 돌본다.

기초생활수급자 10,983가구, 소외계층 공동생활시설 및 단체 11개소, 노인요양복지시설 42개소 등에 설 위급금을 전달하며 결식우려 저소득 어르신 1,514명에게는 명절음식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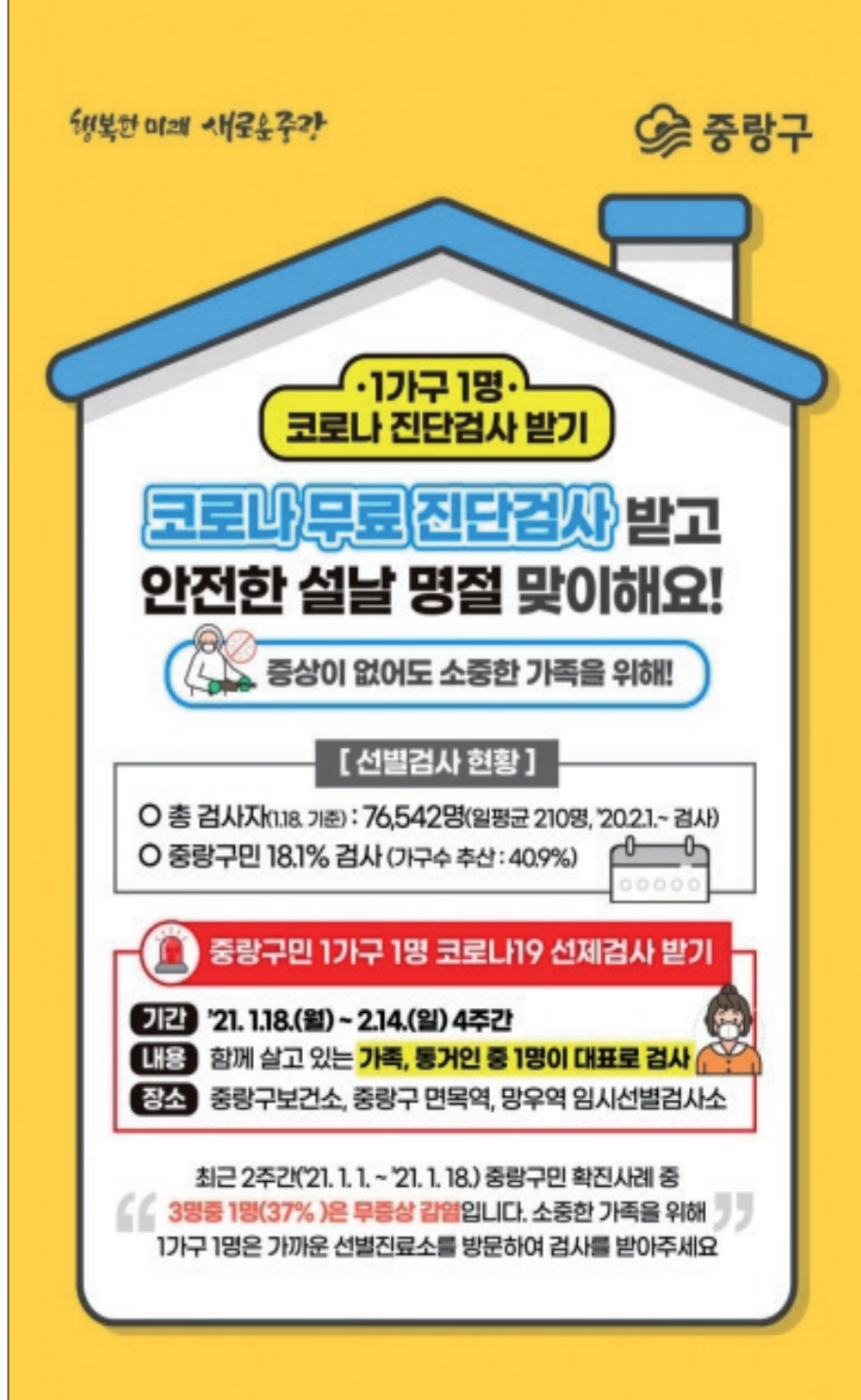
이밖에도 청소기동반 확대운영,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제설 비상대응체계 유지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구민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명절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구민분들께서 안전하게 설날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한 코로나 방역과 생활불편 해

소에 힘쓰겠다"며 "연휴기간 불필요한 이동을 삼가주시어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가까운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행복한 미래 새로운주거

중랑구

·1가구 1명·
코로나 진단검사 받기

코로나 무료 진단검사 받고
안전한 설날 명절 맞이해요!

증상이 없어도 소중한 가족을 위해!

[선별검사 현황]

- 총 검사자(1.18 기준) : 76,542명(일평균 210명, 2021.~ 검사)
- 중랑구민 18.1% 검사 (가구수 추산 : 40.9%)

중랑구민 1가구 1명 코로나19 선제검사 받기

- 기간 '21. 1.18.(화) ~ 2.14.(일) 4주간
- 내용 함께 살고 있는 가족, 동거인 중 1명이 대표로 검사
- 장소 중랑구보건소, 중랑구 면목역, 망우역 임시선별검사소

최근 2주간(21. 1.1. ~ 21. 1. 18.) 중랑구민 확진사례 중 3명중 1명(37%)은 무증상 감염입니다. 소중한 가족을 위해 1가구 1명은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주세요

수원시, 방역지침 미준수한 요양원 대표자 ‘고발’

증상 발현 후 출근, 마스크 미착용 등...시설 경고 및 대표자 과태료 부과

수원시가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된 후 수일간 출퇴근을 지속하는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권선구 A요양원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영자인 B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요양원에서는 지난 1월 27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2월4일까지 종사자 11명과 입소자 32명 등 총 43명이 확진됐다.

이에 수원시는 방역지침을 위반한 A요양원에 행정처분으로 ‘경고’ 조치를 내리고 운영자인 B대표에게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감염병 환자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B대표는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돼 향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벌칙으로 받을 수 있다.

앞서 수원시는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지침을 위반한 고위험시설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조해 왔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경우 엄중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며 “방역에 취약한 노인과 어린이 등이 생활하는 고위험시설 근무자들은 더욱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로 입소자들을 보호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수원시가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된 후 수일간 출퇴근을 지속하는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권선구 A요양원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영자인 B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수원시는 지난 5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권선구 A요양원에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표자 겸 사무국장으로서 근무하는 B씨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권선구보건소의 심층역학조사 결과, A요양원 B대표는 지난 1월 21일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됐음에도 모든증을 다니며 입소자 및 종사자와 접촉하는 등 감염병 예방조치를 준수하지 않았다.

또 A요양원은 칸막이가 없는 지하 식당에서 직원들이 식사하도록 해 거리두기를 준수하지 않았고 종사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도 CCTV에서 수차례 관찰됐다.

특히 B대표는 확진 판정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편의로 귀가 조치하는 등 감염병 관리에도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A

양산시, 설 명절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 단속

양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 세트 등 과대포장 행위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1년 2월 8~10. 관내 유통업소의 과대포장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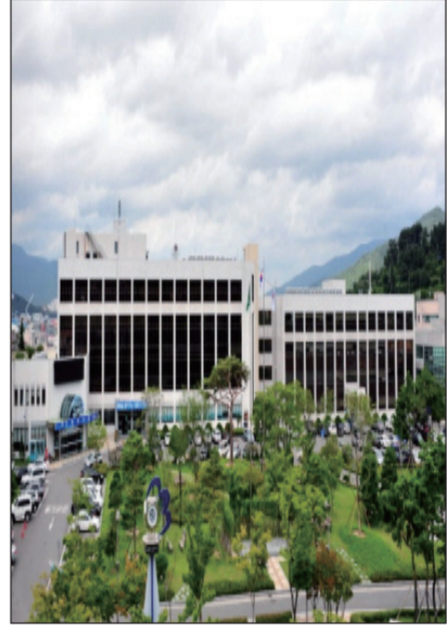
이번 집중 단속은 명절 선물의 과대포장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다.

특히 최근 경기하락과 재활용시장의 침체에도 비대면 소비의 증가에 따라 재활용품의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포장류 처리를 고심하고 있는 만큼 명절 선물의 과도한 포장 쓰레기 발생억제가 시급한 상황이다.

주요 내용은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주류 등의 종합제품은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단위제품인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세제류 등의 단위제품은 포장횟수는 2회 이내, 포장공간비율 15% 이하, 음료, 주류 등은 10% 이하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는 별도로 2021년 1월 1일부터 면적 33㎡ 이상인 매장에서는 포장 제품을 재포장에 판매하는 것이 금

남궁영기기자



청송군,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 및 임대차 정보 파악, 정비

청송군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지현황,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등을 파악해 농지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작성 대상은 1,00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이다.

농가주 일반사항,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 현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가주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작성·관리된다.

지난해 농업인의 주소지와 농지소재지의 행정구역이 다른 농지원부 및 관내80세 이상 농업인의 농지원부 1,259건 중 1,207건을 정비해 정비율 95.9%를 달성했고 올해에는 80세 미만 농업인의 관내에 소재한 농지 28,741건에 대해 농지의 소유, 임대 및 이용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 후 그 결과를 활용해 농지원부 정비를 최종적으로 완료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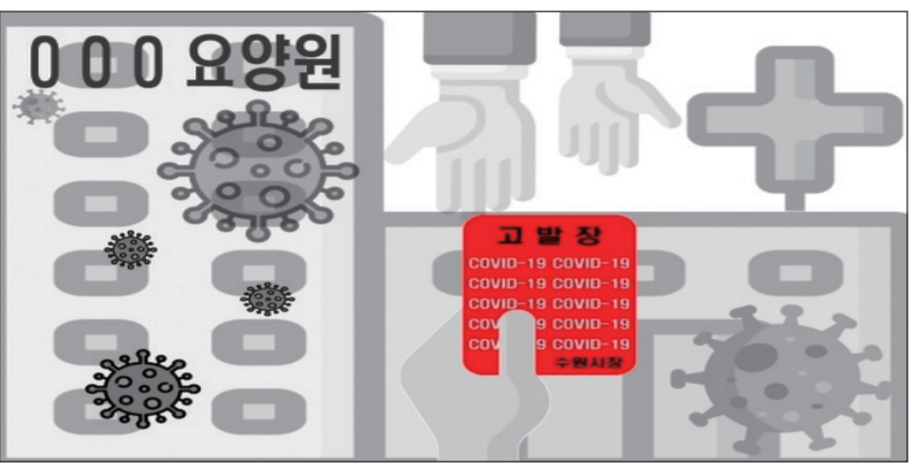
농지원부 정비절차는 군 및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정책DB와 비교·분석하는 것을 토대로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현행화 할 계획이며 정비과

정에서 불법 임대차의 정황이 있는 농지는 필요시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해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농지원부 정비과정에서 소유 및 임대, 경작 등의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해당 농업인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작년부터 추진해온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 해 농지의 소유·임대 및 이용실태에 대한 농지원부 현행화를 통해 농지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연수구, 설 연휴 대비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이달 14일까지 환경오염 취약 지역 및 업소 중심 단속 예정

연수구는 설 연휴를 대비해 2월 1일부터 14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기간으로 정하고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시설에 대한 특별단속과 감시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감시는 연휴기간 동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 등을 악용한 환경오염물질의 불법 배출을 예방하기 위해 계획됐다.

구는 설 연휴 전 사전계도와 자율점검 유도하고 환경오염 취약 업소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설 연휴 중에는 환경오염사고를 대비해 상항

반을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대면점검은 가급적 지양할 예정이나 적발된 고의·상습적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하는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사전 예방 활동뿐 아니라 설 연휴기간 상황을 운영해 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군산시, 내 집 마련 꿈 짓밟는 부동산 불법거래 엄단

2차 특별사실조사 실시, 공인중개사 암행감시, 상시모니터링 체제 가동

군산시는 오는 15일부터 군산 전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2차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아파트 중 평가 이상 거래건, 30세 이하 거래, 다주택 거래건 등 200여건에 대한 정밀조사에 들어가며 특히 공인중개사에 대한 암행감시로 아파트 거래가격 담합 및 과대광고 등 교란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다.

이에 앞서 지난 12월 아파트 가격 급등세에 따른 부동산 투기세력 엄단을 위해 부동산 특별조사단을 꾸렸다.

조사단은 지금까지 총 219명에 대해 편법증여, 명의신탁, 가격 허위거래 등 불법거래 여부를 철저히 조사했다.

현재까지 총 65건 5천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조사결과 명의신탁 혐의건에 대해서는 세부조사 중이다.

또한 집중 조사를 실시한 지역의 아파트 거래가격이 주춤세를 보이고 있으며 타지인 거래도 조사전 대비 80%이상 감소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1차 조사를 통해 가격 급등세를 보인 아파트 거래

자 94%가 타지인이며 그 중 95%가 갭투자자로 나타났다.

이들 외지인들 중 일부는 부동산 관련 카페, 블로그 등에서 군산 투자 관련 정보를 얻어 직접 거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 관계자는 “불과 한 두 달 사이 타지 투기자들 때문에 일부 아파트가 1억원 이상 가격 급등세를 보였다”며 “이번 조사 결과 실수요자가 10%도 못 미치는 현실에 통탄하며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시민들이 더 이상 좌절하고 피해보지 않도록 끝까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태기자



경기도, 재래시장·음식점 등 3,885곳 원산지표시 점검. 거짓·미표시 8건 적발

경기도가 설을 대비해 실시한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결과 부적합 표시 8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3일까지 수원시 등 20개 시·군의 전통재래시장, 도소매 판매장, 음식점 등 3,885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 중 원산지 미표시 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79만 2천원을 부과하고 거짓표시 1건은 검찰 고발 조치했다.

위반 사례를 보면, 광주시 A횟집은 일본산 활우렁쉥이를 원산지 표시란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한 채 판매하다가 점검에 적발됐다.

이렇게 속여 판매한 물량만 약 30kg에 이른다.

활우렁쉥이는 9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국내양식 출하량 급감으로 수입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원산지 둔감 가능성이 높아 확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과천시 B마트는 설 명절에 대비해

들여놓은 활전복 4kg의 원산지를 수족관에 표시하지 않았고 하남시 C유통업체는 동태, 명태 등 제수용품 3가지에 대해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이 밖에 도는 원산지 표시가 흐릿하게 돼 있거나 표시판 게시 위치가 부적절한 경우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했다.

이해원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올바른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을 위해 감시원 129명을 상시 투입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조치할 방침이다”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잘못 표기된 결로 의심될 경우 경기도나 관할 시·군에 즉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Large advertisement for Gyeonggi-do featuring a woman in a hat and backpack overlooking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e. Text includes '경북농촌체험휴양마을' and '美에 반하다'. Logo for Gyeonggi-do Provincial Government is in the top right.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장학생 1천 명에 6억여 원 지원

8일부터 '다함 특별 장학생' 모집

시흥시인재양성재단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흥시민을 응원하기 위해 8일부터 '다함 특별 장학생' 1,000명을 선발 모집한다.

2021년 '다함 특별장학생' 모집은 지난해 11월 '코로나19 극복 특별장학생' 선발에 이은 긴급 지원이다. 시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고자 기존 200여명 수준의 정규장학생과 비교해 선발 인원을 대폭 확대했으며 1인당 최대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또한, 이번 장학금은 과거 지역사회를 위해 불의에 대항한 '한반위'의 순수한 시민운동 정신을 계승하고자 지역공동체를 위해 애쓰고 있는 지역활동가 또는 자녀를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담았다.

접수 기간은 2월 8일부터 오는 25

일까지이며 신청 및 서류 제출은 우편접수만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시흥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자'로 관내 초·중·고 재학생 및 동일 연령대 청소년 또는 대학생이 대상이다.

더불어, 재단은 오는 3월 중에 기존 정규장학생을 모집할 예정이며 특별장학생 선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병택 이사장은 "긴급성과 신속성을 고려해 정규장학생과 별도로 특별장학생을 선발하게 됐다"며 "코로나19 위기가 배움에 대한 위기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장학 정책을 더욱더 강화하며 시민의 든든한 후원군이 되겠다"고 밝혔다.

최정부기자

2021년 다함(개) 특별 장학생 선발

시흥시인재양성재단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있거나, 지역사회를 위한 공헌행위 또는 자취를 증명하기 위한 '2021년 다함(개) 특별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 장학금: 과거 재학생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소수인 시흥시민을 위한 지원금 1인당 50~100만원 (정규장학생 지원 제외) ※ 지원자격: 시흥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자 ※ 신청기간: 2021. 2. 8(월) ~ 2. 25(목) ※ 접수방법: 신청서와 추천서(1인당 1명)를 시흥시인재양성재단(충무로 300호 재단 사무국)에 접수 ※ 문의처: 재단법인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충무로 300호) 031-311-4200

안성시, "전통시장에서 편하게 장 보세요"

설 연휴 맞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 유예

안성시는 설 명절 연휴기간인 오는 14일까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 유예 구간은 안성시장과 중앙시장 주변도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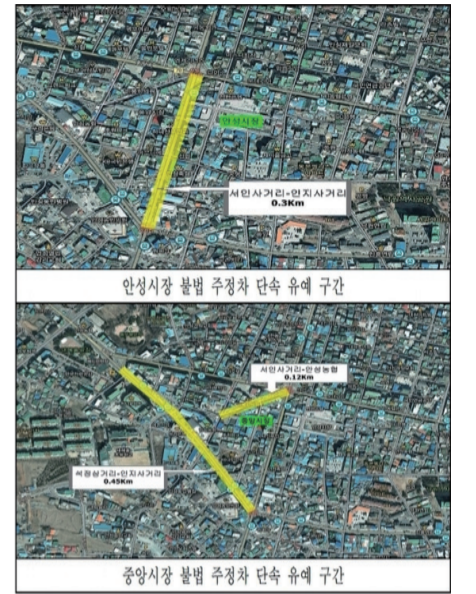
다만, 행정안전부 앱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신고 앱의 신고대상인 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모퉁이,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단속 유예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안성시는 한시적 주·정차 단속 유예에 관한 홍보를 위해 차량 운전자가 알기 쉽도록 현수막을 게시하고 전통시장 주변에 주행형 단속차량을 이용한 홍보 방송도 실시한다.

김경재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이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시민 여러분

께서는 늘어난 주·정차 허용 시간 만큼 보행자 안전 확보와 함께 자발적인 주차 질서 확립에 동참해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남주기자



김포시, 2021 사회적경제 창업 공모전 실시

바로 지금 난 아이디어 하나로 도전한다

김포시는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사회적 가치에 중심을 둔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2021 사회적경제 창업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역 사회 내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고 사업화에 필요한 창업지원을 통해 예비 창업 사회적 기업가를 발굴하고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했으며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가 있는 개인 또는 팀이거나, 설립 3년 미만의 김포 소재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최종 선정된 5개의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팀 당 5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의 창업지원금과,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진입을 위한 자문, 맞춤형 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접수 마감은 3월 2일까지이며 김포시 누리집 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 및 양식을 다운받아 이메일 또는 김포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김포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경 주민협치담당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 모델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으며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유망 창업자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근기자

2021년 김포시 사회적경제 창업공모전

접수기간: 2021.02.05(화) ~ 03.02(화) 18:00시 까지

모집대상: 지역에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과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연혁) 아이디어가 있는 개인, 팀, 설립 3년 미만의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 (김포소재)

지원내용: 사업비 지원, 사회적경제 창업 관련 연도 및 교육 제공, 개인연계 등

접수방법: 1. 접수: 김포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김포시 사우중로300호 13-17 김포시행정학숙관 1층) 2. 이메일 접수: kang02291@korea.kr

신청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최종합격자(P.T 발표)

신청자격: 1차: 서류심사 2차: 최종합격자 (사회적경제 창업관련 연도 및, 연설문 지원)

문의처: 김포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Tel. 031-980-2749 (업무시간: 09:00~18:00)

고양시, 설 연휴 쓰레기 관리대책 추진

고양시는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쓰레기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설 연휴 기간인 2월 11일부터 2월 14일까지 쓰레기관리 대책상황반을 구성해 쓰레기 관련 민원을 접수하는 한편 기동정소반을 운영해 연휴기간 중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및 방치쓰레기를 신속히 수거하고 주요 도로의 상습 정체구간을 대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 위반행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설 연휴 기간 2월 12~14일은 쓰레기 수거업체가 휴무에 들어가 생활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휴 시작 날과 마지막 날인 2월 11일과 15일에 생활·음식물 쓰레기를 집중 수거한다.

따라서 각 가정에서는 가급적 2월 10일과 14일 일몰 이후에 쓰레기를 배출하면 깨끗한 주변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고양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각 가정에서도 낭비되는 음식

올바른 분리배출 가이드. 재활용용품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이 없도록 준비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 쓰레기 감량 및 분리배출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하며 "특히 올해는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을 활용해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방법을 확인하면 편리하다.명절 선물세트의 부직포, 코팅종이, 혼합물질 등은 재활용이 불가

하므로 종량제 봉투에 버리고 과일포장 완충재는 스티로폼 혹은 비닐로 분리배출하는 등 각 사례별 올바른 방법을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을 통해 바로 확인, 실천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근기자

약이 필요한 늦은 밤에도 걱정 마세요.

인천시, 올해 '공공심야약국' 대폭 확대. 5개소 → 11개소

인천광역시시는 약이 필요한 심야시간에도 약품 구입은 물론 전문약사에게 복약지도도 받을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 11개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공심야약국은 시민의 공공보건에 대한 안전과 편의를 생각한 박남춘 시장 공약사항으로 지난 '19년 3개로 시작해 20년에는 5개, 올해 21년에는 11개로 대폭 확대했다.

운영시간은 365일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1시까지 운영을 기본으로 하며 24시간 운영하는 곳인 부평구의 '동암프라자약국', 새벽3시까지 운영하는 서구 '성모약국'이 있으며 주7일 야간운영이 어려운 남동구의 '365행복약국'과 '이약국'은 요일을 나누어 운영하기도 한다.

공공심야약국은 약사가 야간시간

에 대기하며 의사처방전에 따른 전문 약품 조제·복약지도도 포함, 해열제, 진통제 등 응급약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운영비용은 인천시와 해당지역 지자체가 부담한다.

현재는 6개구에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공공심야약국이 없는 지역인 동구, 연수구, 강화군, 옹진군은 해당 구·군과 인천약사회 등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확대할 예정이다.

안광찬 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올해는 약국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운영 약사들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업추진의 개선점과 건의사항 등을 수렴할 계획으로 시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더욱 세심하게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구/군	약국명	소재지	운영시간	연락처
중구	안남약국	중구 안남동 10-1 (안남시장 1층)	365일	032-683-9939
미추홀구	안남약국	미추홀구 안남동 10-1 (안남시장 1층)	365일	070-6874-7563
	주안약국	주안동 10-1 (주안시장 1층)	365일	032-874-3652
남동구	보림약국	남동구 보림동 955 (보림시장 1층)	365일	032-427-9729
	365행복약국	남동구 남동동 1074-1 (365행복시장 1층)	365일	0507-1343-8184
부평구	동암프라자약국	부평구 동암동 275 (동암프라자 1층)	365일	032-439-4802
	성모약국	부평구 성모동 314-1 (성모시장 1층)	365일	032-524-4590
계양구	연안약국	계양구 연안동 93 (연안시장 1층)	365일	032-552-1168
	고려약국	계양구 고려동 1074 (고려시장 1층)	365일	032-543-0248
서구	성모약국	서구 성모동 174 (성모시장 1층)	365일	032-563-6083

풍요로움이 주렁~주렁~

여기는 영양군입니다

의회

주민에게 믿음 주는 영양군의회

홍감도전적담, 반딧불이천문대, 은행나무, 석적지, 고추밭리기

윤화섭 시장 “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 147억원 투입”

윤화섭 시장 “소상공인 큰 고통... 희망과 용기 드리겠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8일 “소상공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3차 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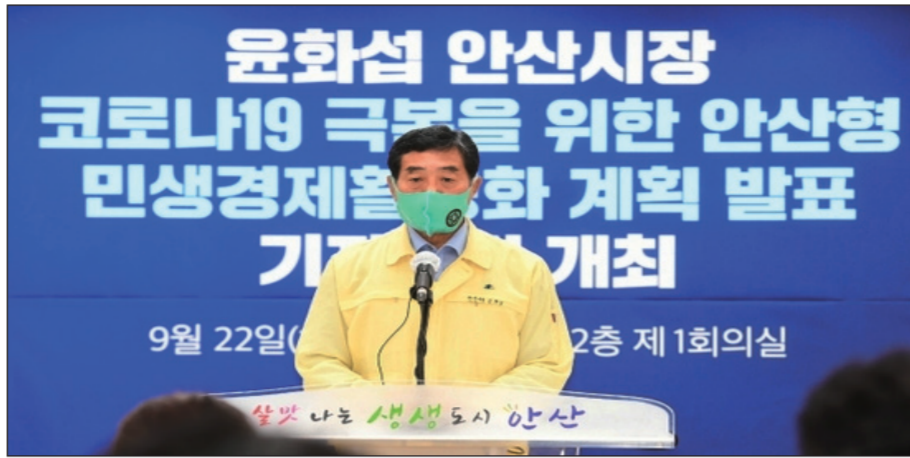
윤 시장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시행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소상공인 사업자들은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다”며 “코로나19 여파로 소득 감소가 큰 업종 사업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시는 ‘3차 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금’을 설 연휴가 지난 뒤 이달 중순부터 접수를 받아 다음달 중으로 모두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용 인터넷 접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거쳐 모든 지원대상이 받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에 따른 소상공인 및 소득 감소 업종 종사자다.

구체적으로는 학원·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교습소 등 집합금지 업종 3천800개소 식당·카페·미용원·PC방·숙박시설·스튜디오 등 영업제한 업종 1만2천개소 등이며 외부활동 감소로 매출이 상당부분



줄어든 법인택시 종사자 790명 개인 택시 종사자 2천90명 등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지난해 11월24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운영이 중단돼 막대한 영업 손실을 겪고 있으며 영업제한 업종도 9시 이후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147억을 투입하며 이 가운데 4억원은 긴급 예비비로 확보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할 방침이다.

지원 조건은 지난해 11월30일 이전부터 안산에서 영업을 한 사업체만 해당되며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거나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

우에는 1인에게 한 번만 지급된다.

윤화섭 시장은 “이번 지원 대상으로 지정된 업종 종사자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버팀목 자금으로도 정말 절박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대다수”며 “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리고자 3차 생활안정지원금을 심사속고 끝에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시민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정부기자

최대호 시장, 안양 사는 것 큰 자긍심 될 것

8일 온라인으로 ‘2021 안양시, 새로운 10년의 미래를 그리다’ 발표

최대호 안양시장이 8일 유튜브 온라인중계를 통해 금년도 시민행복을 담은 시정방향을 발표했다.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10년, 미래를 그리다’란 테마의 시정방향은 경제분야를 시작으로 스마트 안전, 복지, 균형발전, 녹색도시, 시민중심 그리고 코로나19 대응책 등 7대 과제로 구성됐다.

경제분야의 핵심은 ‘안양형 뉴딜’의 청년뉴딜이다.

2025년까지 일자리 14만 창출을 목표로 창업지원과 청년기업 백 개를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지난해 조성한 청년창업펀드 921억원이 투입된다.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안양형 청년 일자리 두드림 사업’과 온오프라인 취업박람회, 24시 온라인 전용채용관 등도 운영한다.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 인터넷’과 ‘청년 월세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간다면, 석수동과 관양동 일원 청년스마트타운 조성, 범계동 지역 공공청사 복합개발 추진은 향후 청년들의 안양 정착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시는 매년 시행해온 중기육성자금과 특례보증 지원 말고도 글로벌 진출 비즈니스 강화로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침체에 빠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120억원의 ‘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을 긴급 지원한다.

‘공공배달앱’ 도입, ‘특화상권’ 육성, ‘온라인 동네시장 장보기’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스마트도시 조성분야에는 안전과 편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야심 찬 계획이 숨어있다.

여기에는 AI, 빅데이터, IoT, 5G 등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표하는 신기술이 적용된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경찰, 소방서 법무부 등 유관기관을 연계한 인프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확실하게 지키게 된다.

더 나아가 ‘경기IoT거점센터’와 사회적 약자 맞춤형 안전시스템 구축 ‘안양형 자율주행 시범사업’을 시도하는 한편 산불과 폭우 등의 자연재해 감지에 드론을 본격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IoT를 수도권검문에 활용하고 집중호우 시 지하차도 침수에 대비하는 ‘스마트 지하차도 시스템’을 도입해 과학행정을 구현한다.

모든 시민이 대상인 ‘시민안전보험’, ‘시민자전거보험’, ‘방역 음식점업 인증하는 안식당’을 확대한다.

최근 사회문제 된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조사와 판정 및 전문적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 배치를 확대한다.

뜻 있는 기업이 출현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을 도모하는 ‘착한기업’과 함께 하는 ‘행복마을관리소’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한다.

또한 계절 맞춤형 복지특화사업인 ‘복지사계절’ 사업, 치매안심병원 건립 추진, 치매어르신 IoT안심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가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지원함은 물론, 지역 아동들을 이웃 간 연계해 돌보는 ‘공동육아나눔터’를 특수시책으로 벌인다.

올해 첫 삽이 뜰 장애인복합문화관은 장애인들에게는 큰 기쁨이 될 것이다.

안양6동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과 박달스마트시티를 연계한 광역교통망 계획을 수립해 서안 양권 발전을 도모한다.

긴급차량 우선 신호와 스쿨존 사고 예방, 민간주차장 정보공유 등의 시스템이 적용되는 AI기반의 지능형교통체계를 확립한다.

양평에 학원가 밀집된 귀인동과 신촌동 일대 평촌대로에 지하 공공주차장 건설을 추진, 만성적 주차난 해소에 나선다.

수도권광역철도망인 GTX-C노선의 인덕원역 정차추진을 멈추지 않는 가운데 인덕원역을 거쳐 가는 월판선·인동선·신안산선의 구축에 차질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근 이용이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질서 확립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석수동 구 분뇨처리장의 관리동이에 코그린센터로 탈바꿈 한다.

이곳을 단열, LED조명, 고성능 창호 등으로 리모델링함으로써 쓸모없던 곳을 친환경 그린뉴딜 허브공간으로 환골탈태시키는 것이다.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을 포함한 일대를 하천, 숲, 공원, 하수처리장이 어우러지는 종합적 생태환경교육 공간으로 만드는 사업도 금년에 펼친다.

쓰레기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무인순환자원 회수기 백대를 설치하는 한편 박달동 폐기물선별장의 환경도 개선한다. 또 임곡공원과 비봉산에 힐링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실시간 예·경보제를 시행해 측정치가 높은 지역에 진공차와 살수차 투입을 신속히 한다.

시는 코로나19로 일상이 된 비대면 소통채널을 집중 가동, sns라이브 방송과 유튜브, 카카오톡,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으로 양방향 소통을 강화함과 아울러 주요시책과 행사에 따른 기획홍보영상물을 제작해 시민과 공유해나가기로 했다.

센터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재개하고 현재 안양1동과 귀인동에 도입한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한다.

이웃 간 연대로 상생발전의 길을 여는 ‘행복마을관리소’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한다.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시민참여위원회’, ‘주민참여 원탁회의’, ‘주민참여예산제’, ‘시정현장평가단’, ‘청년정책포터즈’ 등을 올해도 이어갈 예정이다.

시는 곧 다가올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비해 사전준비와 함께 전담팀을 구성 및 접종센터 후보지 선정 등 빈틈 없는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방역가동TF팀을 구성한 가운데 방역물자와 재물관리, 시설관리, 자가격리자 관리,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방역물품 지원 등 코로나19 위기관리 시스템에 올해도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제한으로 파이가 큰 소상공인들을 위해 상수도요금 2차 특별감면에 이어 ‘행복지원자금’으로 120억원을 쏟아시는 지난해 코로나19라는 예기치 않은 악재에도 알뜰한 성과를 올렸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대통령상을 수상했는가 하면, 대한민국 소셜 미디어대상과 일자리대상에서 기초단체부문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전국 처음으로 지방규제혁신 최우수상을 2년 연속으로 수상하고 우수기관 인증도 받았다.

청년층 창업과 일자리에 든든한 자금줄이 될 청년창업펀드 921억원 조성도 괄목할 성과다.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비로 118억원, 경기 밤도깨비 안심서늘도시조성사업비와 스마트 그린도시조성 사업비 각 60억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는 기관표창 121건과 각 기관 공모사업 공모에 채택된 286억원의 사업보조금을 태내며 안양시의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됐다.

최 시장은 금년도 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안양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큰 자부심을 갖게 하겠다고 각오를 보였다.

특히 올해를 ‘안양형 뉴딜정책’의 원년으로 삼아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지역경제활성화를 꾀하고 행복이 넘치는 혁신도시로 나아가겠다고 강연의지를 내비쳤다.

최만식기자

설 명절음식 전달로 온기 나눔 ‘진위면 바르게살기위원회’

평택시 ‘바르게살기 진위면위원회’에서는 지난 7일 관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 가구 등 80명에게 설 명절음식을 전달했다.

며칠 전 부터 준비한 김치와 전, 잡채, 소고기국 등을 준비했고 관내기업인 ㈜롯데제과와 야쿠르트, 정다운식품 등의 후원을 받아 더욱 풍성한 음식을 전달했다.

염승연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많이 지치고 힘들지만 사랑과 정성이 담긴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길 바라며 지역사회 어르신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김상희 진위면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속적으로 봉사하는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남주기자

평택시 청년청소년참여위원회 14기 위원모집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청소년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법적 청소년 기구입니다

- 정체제안: 청소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합니다.
- 대인활동: 청소년 간의 교류와 연대를 강화합니다.
- 교류활동: 지역사회의 청소년들과 교류합니다.

접수기간: 2월 2일(화) ~ 3월 13일(토) 매일 1차 서류 합격 후 문자공지
 접수대상: 평택 지역 내 9세~24세 청소년
 접수방법: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http://www.pytcx.kr)에서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이메일 발송(지원 신청서 1부, 학교장추천서 1부) / 우편 접수: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평택시청 1층)에 접수합니다.
 접수주소: pytcx1515@pytcx.kr
 활동지역: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소재 및 위원중 교보 봉사시간 인정(공공활동 시간에 한함) / 활동 확인서 발급
 접수문의: 031-646-5432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활동기획팀 번호영)

2021년 14기 평택시 청년청소년참여위원회 14기 위원모집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http://www.pytcx.kr)에서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이메일 발송(지원 신청서 1부, 학교장추천서 1부) / 우편 접수: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평택시청 1층)에 접수합니다.

STICKER

네임스티커 & 각종 홍보판촉 스티커

전제품이 특수 방수 코팅 되어있어 컵이나 식기류에 붙여도 번지거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린이용품은 물론 각종 생활용품, 홍보물에도 활용하시기 좋습니다.

TOPPER

기쁜날 감동을 두배로 케이크토퍼

기념일 축하, 여행 감성사진, 기업홍보, 이벤트에 빠질 수 없는 케이크토퍼 토퍼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디자이너다해 ■ 디자인다해를 검색하세요

www.designdahae.com

부산시, '설 연휴 생활방역 사이트' 운영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설 연휴 보내세요



부산시는 설 연휴 기간에 코로나19 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는 '설 연휴 생활방역 사이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며 생활방역/교통 의료/환경 문화관광/경제복지 안전/기타 등 꼭 필요한 정보를 담았다.

또한, '비대면 명절'에 즐길 수 있는 온라인 문화행사 및 전시회, 부산여행 영상과 사진 등도 한눈에 볼 수 있다.

특히 2월 11일부터 2월 14일까지 연휴 기간 공설,사설 보안 시설

의 임시 폐쇄 등 24시간 방역체계를 안내하고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원 상수도 관련 정보 연휴 기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나눔문화 확산 캠페인 등도 자세히 안내한다.

부산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한다.

설 연휴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직계 가족의 경우에도 거주지가 다를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할 수 없다.

또한, 설 연휴에도 선별진료소

검사와 병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24시간 비상 체계를 구축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설 연휴에도 선별진료소 검사와 병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24시간 비상 체계를 구축해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시민들께서는 설 연휴에 최대한 귀성과 여행 등을 자제하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나눠달라"고 말했다.

남광용기자

진주역사관 건립 기증유물전 개최

문화예술인 5명 기증유물 및 '보병과 더불어'악보 국가등록문화재 지정 기념

진주시는 8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진주시청 2층 갤러리 진심1949에서 '진주역사관 건립을 위한 기증유물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유물전은 '시민의 손으로 진주의 역사를'이라는 주제로 지난해 기증된 시조시인 최재호, 작곡가 최인찬, 작곡가 박인회, 시인 조항, 작곡가 이상근 등 문화예술인의 유물을 처음으로 선보이는 자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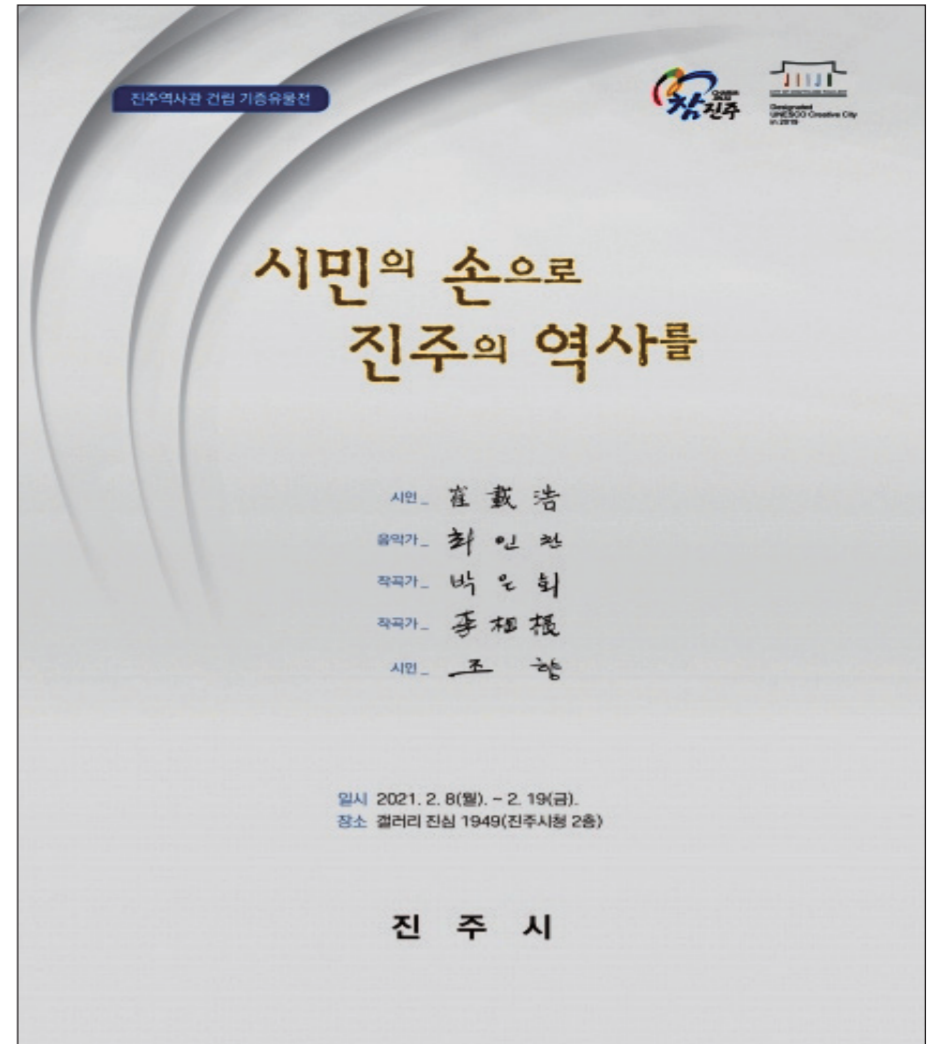
특히 지난해 8월 국가등록문화재 제791호로 지정된 작곡가 이상근의 '보병과 더불어'의 악보를 특별 전시한다.

진주역사관 건립은 천년고도의 역사와 예술의 도시에 부응하기 위한 시민의 소망으로 2019년 5월 진주역사관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위원회에서는 역사관 건립과 기증유물을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리영달 위원장은 "이번에 개최되는 기증유물전은 역사관 건립의 시작을 알리는 뜻깊은 행사로 진주시민들이 진주의 역사적 자료와 유물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진주의 역사유물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올해부터 역사관 건립을 위한 기증유물 확보를 중점 추진하고 기증 유물에 대한 기획전시 및 정기전시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증유물 수집은 문헌자료, 사진영상자료, 예술작품, 유품, 유품원고 등 진주의 사라져가는 흔적을 되살리고 후세에 전해야 할 진주의 역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대상으로 하며 마



를 기록화 및 근·현대 문화인물 기록화 사업을 통해 마을이나 문화 인물의 이야기와 소장유물을 중점 발굴 예정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처음 개최되는 기증유물전으로 기증자의 뜻이 잘 전해져 우리의 소중한 문화자산을 활짝 꽃피우고 우리 지역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일에 시민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광용기자

남해군, 혁신·적극행정 실천다짐 결의식 개최

"2021년 군정 목표 실현을 위한 전 직원 동참 의지 다짐"

남해군은 지난 5일 남해군청 대회의실에서 '혁신·적극행정 실천다짐 결의식'을 열고 2021년 군정 핵심 목표인 '적극행정'에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결의식은 장충남 군수를 비롯해 '2020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20년 상반기 최우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농업기술과 최경복 주무관과 2021년 신규 임용된 도시건축과 류지선 주무관이 직원대표로 혁신·적극행정 실천결의문을 낭독했다.

또한 2020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직원들이 참석해 결의식 선서를 함께 했다.

또한, 직원대표와 장충남 남해군수가 혁신 및 적극행정 실천다짐 서명판에 서명을 하며 기관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군민을 위한 혁신·적극행정을 한뜻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남해군 공직자 모두가 결의문을 가슴에 새기고 혁신·소통·책임행정을 하는 분위기



를 조성해서 경상남도를 넘어 전국을 앞서가는 적극행정을 실천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남해군은 코로나19에 따라 비대면으로 직원들의 동참을 이끌어내 혁신 적극행정 실천다짐 서명판을 제작했다.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직원들의 자발적인 서명을 받았으며 결의식까지의 진행과정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전 직원들과 공유하고 남해군의 혁신 및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대내외부적으로 홍보 할 예정이다.

최광용기자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담은 명절음식 나눔활동 실시

함양군사회봉사단체협의회와 LH에서 제공한 키트 관내 취약계층에 배부

함양군은 설 명절을 앞둔 8일 오전 명절음식 키트를 제작해 관내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명절음식 나눔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활동을 통해 함양군사회봉사단체협의회에서 제공한 명절음식 키트 150세트와 LH,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에서 후원한 키트 70세트를 합해 총 220세트가 읍면을 통해 노인가구,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등에게 전달됐다.

나눔활동에 함께한 사회봉사단체협의회 임원들은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지만 이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왔다"며 "우리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담은 명절음식을 드시고 명절 잘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코로나로 인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변함없이 봉사와 나눔을 몸소 실천해 주시는 사회봉사단체협의회 회원들과 LH임직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세심하게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에 함양군의 미래는 더욱 밝고 든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영훈기자



2021년은 군산항 재도약(再跳躍) 원년(元年)의 해

군산항 물류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 항만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하며 재도약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지역경제 위기상황과 코로나19 이후 경기 위축과 글로벌 통상환경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경쟁에 대비해 2021년을 군산항 재도약(再跳躍)의 원년(元年)의 해로 삼아 군산항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고차 수출합단지, 7부두 야적장,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사업 등을 통해 자동차, 해상풍력 기자재, 조선산업 등의 군산항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성장동력을 위한 항만 인프라를 구축해 나간다.

항만 유관기관·기업·단체 등이 상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군산항 전략 품목에 대한 마케팅과 해운물류 기조 변화에 따른 대응력을 강화해 나간다.

특히 군산항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전략 화물과 기업을 매년 선정하고 맞춤형 정기적인 포트세일과 함께 소통체계를 구축해 인적 네트워크와 지속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산해수청 주도하에 신규항로 등 저수심 구간 준설 선박 입출항 지원

을 위한 항로 및 박지, 유지준설을 시행해 통항여건 개선 등 군산항의 중심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산항 화물유지 지원 방안을 보완해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 및 해운물류 기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노후되고 항만기능이 상실해 가는 군산내항을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예방하고 지역의 관광·문화·산업 등 다양한 자원과 연계하는 친수 공간으로 조성한다.

그간 서천 지역의 반대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던 금란도 개발사업이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지역 특화개발을 통한 활기찬 항만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새만금신항의 1-1단계 조성 시기에 발맞추어 국내의 부산신항, 인천신항 등과 기존 부두의 과도한 덩펍 경쟁으로 인한 사례 등을 분석해 새만금신항과 군산항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그동안 서해중부권의 물류거점으로 꾸준히 그 역할을 다해 온 군산항이 지역의 산업·고용 위기 상황을 회복하기도 전에 코로나 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미래 지향적인 항만 인프라를 확충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군산해수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 어려운 지역경제를 회복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태/기자

이용호 의원, 「장기기증사랑 인연맺기법」 대표발의!

기증자 유가족과 수혜자 교류는 인지상정, 쌍방 원할 시 교류 가능하도록 개선



국가가 장기를 기증한 기증자와 기증받은 수혜자 상호 간에 쌍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서신 교환 등 교류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8일, 장기기증사랑 및 유가족을 위로하고 장기기증활성화를 위하여 국가가 상호 간의 서신 교환 등 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의 「장기기증사랑 인연맺기법」(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국가는 장기기증자, 장기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 장기기증자인 근로자의 사용자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제비·진료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기기증 관련 업무 담당자 외의 사람에게 장기기증자와 이식대상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장기기증 관련 민간기관을 통해 상호 간의 서신 교류를 지원하는 사례가 있으며, 고인이 된 기증자에 대한 유가족들

을 위로하는 등 장기기증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도 도입하여 장기기증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장기기증 유가족과 장기이식자 간 상호 교류 활동에 대한 규정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이용호 의원은, “미국 유학 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진 김유나 양의 장기기증으로 이식 받은 미국인 김벌리씨까지 지난해 유가족과 상봉해 부둥켜 안은 장면은 모두를 뭉클하게 했다”면서, “국적을 불문하고 수혜자가 기증

인 유가족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를 전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장기이식법은 기증자와 이식자 간 교류를 금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은, “향후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함께 장기기증 유가족과 수혜자가 모두 동등한 경우 수혜자가 충분한 감사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장기기증자 유가족이 위로받고 장기기증이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남출/기자

전춘성 진안군수, 관내 농특산물 홍보에 바쁘다 바빠

설명절 맞이 진안군 농특산물 특판행사 직접 홍보 나서

전춘성 진안군수는 지난 6일 설명절을 맞아 전주 롯데백화점 지하 1층에서 열린 ‘설명절 맞이 진안홍삼 특별 제안전’을 찾아 직접 판촉 활동에 나섰다.

전춘성 군수는 백화점을 찾은 도 시민에게 진안홍삼의 사포닌 함량 등 성분의 우수성을 알리고 군수품질 인증제도 시행에 따른 제품 안전성을 적극 홍보했다.

전주롯데백화점에 마련된 이번 제안전은 남한유일의 청정 고원인 진안군에서 생산한 ‘명품홍삼’으로 만든 다양한 홍삼가공품과 수삼, 벌꿀 등 명절 선물로 맞춤형 농·특산물의 특별 판촉행사로 진행을 요청한 백화점 측의 제안에 따라 오는 2월 10일까지 열린다.

특히 ‘설명절 맞이 진안홍삼 특별 제안전’은 진안군의 이름을 걸고 진행되는 판촉행사의 만큼 진안군수 품질인증협회의 주관으로 군수 품질 인증을 받은 우수한 홍삼제품과 진



안인삼협동조합의 수삼 등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제품만 판매해 소비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판촉행사에 참여한 전춘성 군수는 “이번 설을 맞아 도시 소비자 대상 로컬푸드 직매장 및 백화점 등의 특판행사는 물론 우체국 등 온라인 쇼핑몰을 활용한 비대면 판촉 등을 통해 진안의 우수 농특산물 판매와 홍

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대형마트와 백화점, 직거래장터와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유통 판로를 확보해 나가는 한편 농특산물의 고급화와 안전성 강화로 도시 소비자의 신뢰에 기반한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종철/이희철/기자

강진군, 제2회 현구 문학상 공모

2월 26일까지 접수... 수상자에 상금 300만원 수여

강진군이 1930년대 김영랑과 함께 시문학파로 활약했던 김현구 시인의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제2회 현구문학상을 오는 2월 26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현구 김현구 시인은 1903년 강진에서 태어나 김영랑, 박용철, 정지용, 변영로 신석정 등과 1930년대 활동했던 시문학파 동인이다.

1930년 ‘시문학’ 2호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시작 활동을 벌인 현구는 ‘문예월간’, ‘문학’ 필진으로 참여해 한국시문학사를 풍요롭게 한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생애 85편의 시 작품을 남긴 채 1950년 6·25 참화로 불운하게 생을 마감했다.

특히 김현구 시인은 시문학과 동인으로 활동하며 주옥같은 시 작품을 남겼음에도 한국 문학사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다가, 지난 2012년 시문학파기념관 건립을 계기로 학계의 활발한 조명을 받고 있다.

강진군은 김현구 시인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지역작가들의 사기진작과 창작의욕 고취를 위해 지난해부터 현구문학상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고 있다.

공모 자격은 강진군에 연고가 있는 문학인으로서 강진에 현재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작가 강진에서 10년 이상 거주했던 작가 강진에서 출생한 작가여야 한다.

희망자는 공모 신청서와 최근 3년 이내 출간한 개인 창작집, 강진연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갖춰 강진 시문학파기념관

학예연구실로 접수하면 된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강진에 연고를 작가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자 현구문학상을 제정·운영하고 있다”며 “이 상을 계기로 김현구 선생의 문학정신 발현은 물론 ‘문학도 시 강진’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장길/기자

부안군, 청렴정책 컨트롤타워 청렴리더 회의 개최

부안군은 지난 5일 관·과·소 청렴리더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한 청렴리더 회의를 개최했다.

청렴리더는 청렴도 관련 정보 제공, 현장업무 지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 등을 앞장 서 리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 군 청렴 현실을 인식하고 소속 직원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며 청렴문화를 전파하고 독려하는 등 부서의 청렴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이번 회의는 군 청렴리더 21명이 참석해 2021년 주요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 설명과 함께 청렴정책 발굴, 부패취약 분야 및 업무지시 공정성 분야 등 내·외부 청렴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군은 올해 청렴도 향상을 위해 부안군 5층 운동, 간부공무원 전담교육 실시, 부패취약 분야 청렴이행서약서 배부,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 찾아가는 청렴토론회·청렴간담회 개최 등 강화된 반부패정책을 시행해 청렴도 1등급 달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현태/기자

한동일 기획감사담당관은 “청렴은 곧 친절과 직결된다”며 “청렴도 향상은 친절서비스가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부안의 얼굴이 친절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각 부서의 청렴리더들이 솔선수범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원시노인복지관 설명절 어르신 위안 행사 실시

남원시 남원시노인복지관이 9일 10시부터 꽃길카페 앞 앞마당에서 명절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설명절 위안행사를 실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적모임 5인 이상 집합 금지 규정이 연휴까지 연장됨에 따라 가족들과 만날 수 없는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의 신청을 받아 접수된 인원에 한해 제한적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전, 만두, 식혜 등 명절 음식을 참여자들과 직접 만들어 나누고 율동·저포놀이 등 명절놀이도 즐겼다.

겨울철 변 등의 사유로 행사에 참

여하지 못한 인근 홀로 사시는 어르신 30여명에게도 손수 만든 음식을 맥으로 전달해 훈훈함을 함께 나눴다.

코로나 단계별 대응지침에 의거 우리시가 2단계임을 감안 야외에서 90명의 인원제한을 두고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 점검 등을 위해 노인복지관 전 직원 및 시 담당부서 인력 투입을 통해 방역에 최선을 다했다.

한편 남원시노인복지관은 코로나 대응지침 2단계 가이드라인에 따라 동 시간대 프로그램 대상을 이용자들의 50% 이하가 되도록 조정해 최



대 100인을 넘을 수 없게 하며 격렬한 신체 활동 등을 배제한 프로그램으로 사전 예약제를 원칙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남출/기자

임실군청 공무원 임실사랑...지역상품권 7천만원 구입

조합원 650명에 11만원씩 배부, 노사 공감대 상생·화합 사례 평가

임실군청 공무원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임실군 공무원 노조조합은 8일 군수실에서 심 민 군수에게 "조합원들의 뜻을 모아 임실사랑상품권 7000만원을 구입해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로 했다"며 노조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지를 전했다.

임실군 공무원노조는 앞선 4일 가진 대의원총회에서 조합원들이 모아둔 적립회비로 임실사랑상품권 7000만원을 구입하기로 의결했다.

군 공무원노조가 적립회비를 통해 임실사랑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행사는 노사가 공감대를 찾아 상생과 화합을 통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군청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 이번 지역상품권 구매는 명절 대목에도 불구하고 시름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고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7천만원 어치에 달하는 상품권은 조합원 650명에게 1인당 11만원씩 배부된다.

김진환 노조위원장 "코로나19가 일 년 넘게 지속되면서 올해 설 명절에도 장사가 되지 않아 경제적 고통을 받는 상인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 안타깝다"며 "군청 공무원들이 나서서 상품권으로 장도 보고 명절 선물도 사서 다소나마 보탬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군은 코로나19에 따른 지역 상권 침체를 극복하는 데 지역상품권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청 공무원 노조의 이 같은 참여가 각계각층 유관기관으로 확대되어 지역 사랑상품권 사주기 운동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상품권 구매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임실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 바 있으며 10% 할인율을 적용해 운영 중이다.

최대 25만원까지 주는 임실형 취약계층 재난지원금과 농민공역수당 등을 비롯한 각종 시책 지원금도 지역상품권으로 지원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꽃처럼 임실처럼' 사랑의 꽃 사주기 운동 등 관내 화훼농가 돕기 등 다양한 코로나19 극복 캠페인을 전개하며 눈길을 끌었다.

군은 설과 추석 명절을 전후해 지역경제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전개하는 대신 공무원들의 개별적인 장보기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우리 군이 설 명절을 맞아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임실사랑상품권 구입 및 사용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 노조가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동참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렇듯 노사가 균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상호 이해하고 협력한다면 지역경제 극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은 물론 지역민들도 10% 저렴하게 판매되는 상품권을 많이 구입하셔서 지역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는 데 함께 해주면 더욱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출기자

나주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연중 신청 접수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 대상

나주시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자를 연중 신청 받는다.

나주시는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자녀를 대상으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5% 이하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거나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수급가구 내 미혼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한 가구로 인정돼 주거급여가 일괄 지급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개로 따로 사는 청년들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 기준은 중위소득 45% 이하이면서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모와 다른 시·군에서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임차료를 지불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다.

단 부모의 주거유형이 임차 또는 수선수급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여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부모와 청년 가구가 각각 거주하는 지역의 기준임대료 상환과 소득 수준에 따라 주거 급여가 차등 지급된다.

지원 신청은 구비서류인 '임대차 계약서 분리 거주 사실 확인서류,

청년 명의 통장 사본 및 최근 3개월 내 임대료 계좌입금 증빙 내역' 등을 첨부해 부모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을 통해 20대 청년들이 임대료 부담을 덜고 학업과 취업 준비에 매진해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만기자

완도에 해양치유와 연계한 아토피 스파 들어선다

완도군-힐링웰 투자 협약 체결, 22년 3월 준공 예정



완도군은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일 힐링웰과 '해양치유 아토피 스파'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군 관계자는 "힐링웰에서 86억원을 투자해 아토피 치유 스파를 건립해 완도 특산물인 해조류와 비파 등을 활용하고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한 체험형 힐링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양치유 아토피 스파는 올해 2월부터 22년 3월까지 신지면 신리 일원에 5,280㎡ 규모의 힐링스파텔 1동과 관리사무소 등이 건립되고 28명의 인력을 고용하게 된다.

힐링웰은 아토피 힐링센터 운영 및 관절염, 아토피 등 피부 질환 개선을 위한 각종 건강식품과 화장품을 생산하는 신생 기업이다.

힐링웰 최영주 대표는 "완도군의 해

양치유산업과 연계한 피부 질환 치유 전문시설을 건립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치유산업 발전에 일익을 도모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신우철 완도군은 "완도만의 차별화된 아토피 전문 치유 스파를 건립해 완도의 역점 사업인 해양치유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영을기자

무주군,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올해 무주 지역 여성농업인 1850명에게 생생카드 발급

'건강가득 소득농업'을 실현하는 무주군이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생생카드를 지원한다.

군은 오는 26일까지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신청을 받으며 무주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이 대상이다.

올해 사업비 2억 7,700만원을 확보했으며 모두 1,850여명의 관내 여성농업인이 혜택을 받게 됐다.

발급 대상 가능 연령은 기존 만 20세 이상-만 75세 미만으로 연간 15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접수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받으며 선정 심의회 등 검증과정을 통해 최종 대상자가 선정되면 농협무주군지부 및 지역농협

에서 카드를 발급해 준다. 카드사용 종료일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발급되는 생생카드는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여성 농업인들에게 건강과 복지를 증진을 도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무주군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강명관 팀장은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은 여성 농업인의 반복적인 농작업과 가사노동 과정에서 비롯되는 요통과 관절염 등 만성질환 예방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여성농업인에게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데 큰 보탬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우기자



동대구 더센트로 데시앙

새콤달콤 Berry Good Time 논산딸기축제 올해는 온택트로 만나요

전국을 달콤하게 물들인다, 논산딸기축제와 'Berry Good Time~'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사로잡은 '새콤달콤 논산딸기'가 올해는 랜선으로 전국을 달콤하게 물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

논산시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새콤달콤 Berry Good Time'을 주제로 '2021 온택트 논산딸기축제'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시는 코로나19의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한편 논산딸기의 우수한 맛과 품질을 전국으로 알릴 수 있도록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택트'형식으로 축제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매년 3~4월 경에 개최되었던 딸기축제 일정을 '가장 맛있고 달콤한' 딸기를 맛볼 수 있는 2월로 앞당겨 고당도·고품질 딸기를 선보이도록 '딸기하면 논산, 논산하면 딸기'라는 브랜드 이미지와 함께 겨울을 대표하는 지역축제로 각인시킨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24일 오전 랜선 개막식을 시작으로 첫 선을 보이는 '온택트 딸기축제'는 기존에 딸기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딸기케이크 만들기, 언빠와 함께하는 딸기요리 콘테스트는 물론 '딸기 디저트 Fest', 딸기 영상 콘테스트 등 변화된 축제 형식에 걸맞는 트렌디한 프로그램을 선보여 전국민의 시선과 흥미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SNS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전국민적인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유명 인플루언서를 초청한 웹툰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어서와 논산딸기 처음이지'를 통해 다양한 고품질 딸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5일간의 행사 기간 동안 매



일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논산딸기 특별 판매전을 실시해 새콤달콤한 명품 논산딸기를 최대 30%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며 "비록 코로나19로 논산딸기를 직접 맛보고 수확할 수 있는 체험의 기회가 줄었지만, 온택트 방식을 통해 더욱 많은 관광객들이, 더 큰 재미를 얻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충청북도, 2021년 반도체산업 육성사업 총력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가속화에 발 빠른 대응



충청북도는 충북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신성장동력산업 중 하나인 반도체산업의 생태계 조성

반도체산업은 인공지능, 5세대 이동통신, 자율자동차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가속화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충북은 SK하이닉스, DB하이텍, 네페스, 어보브반도체 등 국내 주요 기업과 100여 개 중소·중견기업이 소재해 반도체산업을 충북 수출 30~40%를 차지하는 주력산업으로 여적 육성 중이다.

지난해 충북도는 반도체산업 전담 팀을 신설하고 반도체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또한 반도체 시제품 제작, 신뢰성 검증 등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실장 기술 지원센터를 준공해 반도체산업 육성과 협업체를 구성

도는 지금까지 다진 기반을 바탕으로 반도체산업 기업지원 기반

구축 혁신 생태계 조성 시장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시책을 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반도체 성능평가·분석 장비 고도화 및 기술지원을 위한 반도체 융합부품 혁신기반 연계 고도화사업도 정부 지원을 통해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다.

반도체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사업은 시스템반도체 선순환 생태계 구축 등을 주제로 반도체 전문가 포럼을 2회 개최하고

또한 시스템반도체 융합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반도체 석·박사 전문인력 10명을 양성하고

에 나선다. 마지막으로 반도체산업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소재·부품 개발, 신제품 개발 등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추진

이외에도 반도체 인프라 구축사업, 인공지능형 융복합반도체부품소재 선도연구센터 구축사업

충북도는 올해 추진하는 다양한 반도체산업 육성사업이 기업의 기술·제품 경쟁력 향상과

충북도 관계자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흐름에 신속히 대응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시책을 발굴해 지역 최대 먹거리산업인 반도체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천안시, 역사·문화를 잇는 '자전거 둘레길 100리' 조성 추진

새로운 자전거 둘레길 39.6km 만들어 총 78km의 천안시 환 중주 코스 개발



천안시는 2025년까지 천안의 역사와 문화를 잇는 '천안형 자전거 둘레길 100리' 조성을 추진해 기존 자전거 도로와의 연결로

박상돈 시장은 8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천안형 자전거 둘레길 100리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새롭게 조성되는 천안형 자전거 둘레길 100리는 연장 39.6km에 달하며 성환천 역사길과 입장 포도길, 입장부소문이길 등 지역 자연경관이 배려가 되는 경소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먼저 2022년까지 성환천 13.5km 제방도로에 북부 지역 주민들의 여가 활동 공간이자 자전거 이용자들이 즐겨 찾는 라이딩 코스로 자리 잡을 성환천 역사길을 조성

이어 시는 현재 추진 중인 10.3km 북면 병천천 벚꽃길 자전거도로 사업이 마무리되면 천안형 자전거 둘레길과 연결시켜 기존 독립기념관과

천안 삼거리 공원을 지나 천안천까지 이어지는 28.1km 자전거 도로와도 연결해 자연경관과 주요 관광지, 역사적 명소를 포함한 천

안시의 한 바퀴 둘러볼 수 있는 총 78km '천안시 환 중주 자전거도로'를 최종적으로 완성한다.

천안시 환 중주 자전거도로 외에도 국가자전거 도로망과의 연계 노선을 개설해 다른 지역과 단절돼있는 자전거도로 연결로 획기적인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자전거 이용자들이 즐겨 찾는 구간인 한강과 수도권 중심의 국가 자전거 도로망과 대전·세종권의 금강 자전거길과 연결하고 문경 새재길과 낙동강, 부산으로 이어지는 국가자전거 도로를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또 시민의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저변 확대와 공유자전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됨에 따라 자전거 횡단도 구간 보도턱 낮추기, 안전표지 확충 등 안전한 자전거도로 환경을 구축한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잠시 중단했던

공공자전거 대여사업도 향후 추이를 살펴 재운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시민이 자전거 이용 시 각종 안전사고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중인 '천안시 안전 자전거 안심보험'에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 보험을 확대 추진한다.

시는 원활한 자전거 도로의 체계적 정비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올해 4월 조직개편 시 자전거문화팀을 신설하고 명품 자전거길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천안형 자전거 둘레길 100리 등 획기적인 자전거 도로 환경 개선 및 촘촘한 자전거 도로망으로 명실상부 대한민국 중심 자전거 르네상스를 천안시가 이룩하겠다"며 "녹색 교통수단으로써의 자전거 인식을 확대하고 역사와 문화경관이 어우러진 자전거도로를 조성해 건강한 레저·관광 인프라 확보는 물론 고품격 문화·관광 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2021년 장락청소년문화의집 비대면 문화교실 인기

제천시 장락청소년문화의집은 모집 첫날 80명 선착순접수가 마감되며 인기를 끌고 있는 비대면 문화교실을 8일부터 운영한다.

비대면 문화교실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활동 키트를 제작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 및 건전한 청소년문화 활동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했다.

"키우자", "만들자"라는 테마로 콩나물, 버섯 키우기, 프라모델, 디폼블럭 만들기 키트를 지급해 가정에서 직접 만들고 키워보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큰 호응을 얻어 모집 첫날 선착순 접수가 마감됐다.

키트배부와 함께 프로그램 진행방법을 영상 제작 후 공유해 프로그램 참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등, 청



소년들과 교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청소년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청소년의 성장에 필요한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동희/기자

마인크래프트로 세종시를 만든다면

세종특별자치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8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세종시의 미래, 스마트시티'를 주제로 '마인크래프트 메이킹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오는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되는 세종 스마트시티 국제포럼의 사전행사로 전국민에게 세종 스마트시티를 홍보하고 시민들의 스마트시티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개최된다.

공모전은 인기 게임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해 자신이 살고 싶은 세종 스마트시티를 자유롭게 설계하는 것으로 전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특히 공모전 성격 상 인기게임에 기반을 둔 만큼 1020세대의 적극적인 참여가 예상돼 스마트시티에 대한 관심연령대 또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 또는 5인 이내 팀이 각 2점까지 작품 응모가 가능하며 5분 이내의 작품 플레이영상을 제작해 국제포럼 누리집에 접수하면 된다.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당선작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상과 상금이 지급된다.

구체적인 참여방법과 시상규모는 국제포럼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스마트도시과로 문의하면 된다.

장민주 시 스마트도시과장은 "누적 2억 이상 이산된 세계적 게임을 활용에 젊은 층의 참신한 스마트시티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국제포럼 관심도를 높일 것"이라며 "수상작은 세종 스마트시티의 미래 구상 및 홍보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김포시민장학회 구기도 이사장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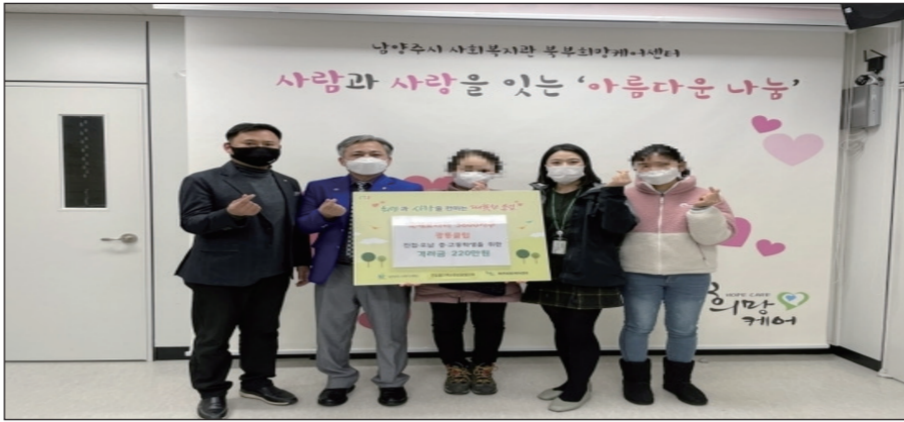
김포시민장학회는 2월 5일 2021년 제1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구기도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전임 이종훈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 및 감사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 선출, 이사장 선출, 정관 일부개정 등의 안건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종훈 전임 이사장은 “지난 3년 3개월 간 오로지 지역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김포시민장학회의 활성화에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앞으로 신입 이사장과 이사님들이 함께 장학발전을 위해 힘써달라”고 말했다. 구기도 신입 이사장은 “전임 이사

장과 함께 지역 발전과 미래 인재 양성을 담당하는 후원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포부를 밝히며 또한 “성장하는 김포시에 발맞춰 김포시민장학회도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이 명예이사장인 김포시민장학회는 1997년 설립되어 지금까지 91억여원의 기금을 조성해 3천 500여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2021년도에는 4월 중 장학생 선발 공고를 통해 170여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영근기자



국제로타리 3600지구 광릉클럽, 진접·오남 지역 중·고등학생에게 격려금 전달



국제로타리 3600지구 광릉클럽이 5일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 찾아 격려금 22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격려금은 지역아동센터, 북부희망케어센터 및 진접을 복지지원과에서 평소 학업에 열의가 있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천해 최종 선정된 11명의 학생에게 각 20만원씩 전달될 예정이다. 37대 광릉클럽 전향 이성우 회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배움의 열

의를 보이는 학생들이 학업에 매진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을 하게 됐다”며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학생들을 항상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달식에 참석한 대상자 박 모 학생은 “격려금을 지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덕분에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 지원받은 격려금으로 문제집을 구입하고 온라인 강의를 수강해 학업에 열중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최만식기자

축구사랑 넘어 이웃사랑까지

가남 FC60 이웃돕기 성금 백만원 기탁

지난 5일 가남읍 FC60 축구클럽에서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에게 써달라며 1,000천원을 가남읍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가남 FC60은 2017년 설립된 60대로 이루어진 축구클럽으로 축구에 대한 열정과 넘치는 에너지로 관내 60대 축구클럽과 정기적으로 친선게임을 벌이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축구에 대한 애정과 더불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50여명의 회원들이 이웃을 위한 기부에 의견을 모았고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모인 성금을 가남읍에 3년째 기탁하고 있다. 이병혁 가남 FC60 회장은 “올해도

어김없이 회원들의 소중한 정성을 모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운동에 동참해 기쁘다”며 “우리 회원들은 축구에 대한 열정만큼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도 크다. 앞으로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희망과 열정을 공유하고 싶다”고 밝혔다. 강대준 가남읍장은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처럼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마음을 모아주시는 가남 FC60 회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은기 가득한 나눔이 이어지고 있는 가남읍 곳곳에 소외된 이웃 없이 행복의 웃음이 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성용기자



서정동 새마을 부녀회, 사랑의 반찬봉사

팬택시 서정동 새마을 부녀회는 지난 6일 부녀회 회원들과 함께 서정동행정복지센터 봉사터에서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관내 불우이웃 35여 가구를 위한 반찬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사랑의 반찬봉사’는 곧 다가오는 2021년 새해 설 명절을 맞이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떡국떡, 곰국을 전달했다. 인희란 부녀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적은 인원만 참석해 진행했지만 무사히 반찬을 마련할 수 있어 감

사드리고 우리 주위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항상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이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돌보는 일에 몸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이종성 서정동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친 주민들을 위해 떡국떡, 곰국을 준비한 서정동 새마을 부녀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관내 어려운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김남주기자



은평구-은평두레생협 나눔비타민 1000개 전달식 개최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 전하



지난 2월 4일 은평구와 은평두레생협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나눔비타민 전달식을 가졌다. 전달식 이후 은평두레생협은 약 1,900만원 상당의 비타민을 은평여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와 서울특별시 꿈나무 마을에 기부했다. 은평두레생협 선경희 이사장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길 바라며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이지만 다가오는 설을 맞이해 작게나마 어르신들과 아

이들이 힘을 얻고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에 김미경 구청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지역의 어려운 극복에 앞장서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기대한다 은평구에 소외된 사람들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며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날을 위해 방역에 더욱더 힘쓰겠다”고 전했다.

조상순기자

계양구중소기업협회, 성금 200만원 기탁

인천 계양구중소기업협회는 지난 5일 ‘희망2021 따뜻한사랑나눔기 캠페인’에 동참해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을 계양구에 기탁했다. 계양구중소기업협회는, 매년 불우 이웃돕기 성금 기탁을 이어오며 관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이근백 협회장은 “설을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

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계양구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희망2021 따뜻한사랑나눔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기부된 성금은 관내 저소득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고정화기자



국민건강보험이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을 위한 작은실천~

건강검진

건강기관안내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지역세대주, 만40세이상 지역세대원 및 직장피부양자, 만19세~만64세 의료급여 세대주, 만 41세~만64세 의료급여세대원
※ 검진주기 : 2년에 1회(직장가입자 비사무직 1년에 1회)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만40세와 만66세에 해당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연령별 맞춤형검사 (B형간염검사, 골밀도 검사, 정신건강검사 등)와 생활습관 평가 등 의사상담을 실시

암검진

- 대상자 : 출생연도에 따라 암종별 연령 및 검진주기에 해당하는 자
- 위암 (만 40세이상, 2년주기)
- 자궁경부암 (만 20세이상 여성, 2년주기)
- 유방암 (만 40세이상 여성, 2년주기)
- 간암 (만 40세이상 고위험군, 6개월주기)
- 대장암 (만 50세이상, 1년주기)

영유아검진

생후 4개월부터~7개월까지의 영유아

국가 건강검진 활용 안내

「민원24」(www.minwon.go.kr) 생활정보 서비스 제공
-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관련 생활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 건강검진으로 운전면허 신체검사 면제

-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갱신 신체검사(시력·청력) 면제가 가능합니다. (단, 검진기관에서 공단에 검진결과를 접수완료한 건에 한함)
- 신청방법 :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정보이용 동의서 작성하거나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인터넷 신청 시 가능
- 대상면허 : 1종 보통면허, 2종 운전면허

학교밖 청소년 건강검진 안내

검진대상 : 9세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19세~24세는 다른 국가검진과 중복 불가
검사항목 : (기본검사) 소변검사, 혈액검사, B형간염검사, C형간염검사, 구강검사
(추가검사) 매독혈청반응검사, HIV항체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

학교밖 청소년 검진관련 문의
(유선전화 : 1388, 핸드폰 : 지역번호+1388)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콜센터 129

h-well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고객센터 1577-1000

2020년 인천시 소비자상담 동향. 전년 대비 1.9% 감소

헬스장·유틸리티센터 품목 소비자상담 최다

인천광역시 한국소비자원 인천지원, 인천소비자단체협의회와 공동 발표한 '2020년 인천지역별 소비자상담 맞춤형 정보 분석'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인천지역 소비자상담 건수는 40,337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0년 인천광역시 소비자상담은 40,337건 2021년 1월 13일 조회기준이며 상담 처리기한 내 수칙 변동 가능으로 전년 대비 1.9% 감소했다.

이는 전국 소비자상담의 약 5.8%를 차지한다.

전체 40,337건에서 기초자치단체 확인이 가능한 17,021건 중 서구가 3,27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평구, 남동구, 연수구 등의 순으로 접수됐다.

2020년 상담 접수 상위 5개 품목으로는 헬스장·유틸리티센터가 가장 많았고 의류·섬유, 이동전화서비스, 항공여객운송서비스, 투자자문 순이었다.

상담 사유를 살펴보면 헬스장·유틸리티센터 품목 등에서 계약관련 상담이 다발했으며 의류·섬유 품목은 배송 지연 등 계약불이행 관련 상담도 주를 이뤘다.

전년 대비 증가율 상위 5개 품목을 분석한 결과, 보건·위생용품이 1,145.0%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예식서비스, 외식,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기타숙박시설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는데, 이는 주로 코로나19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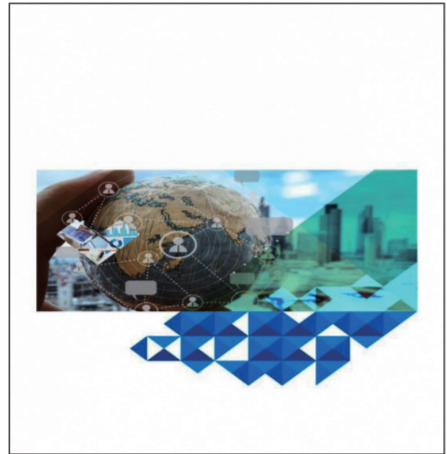
다.

연령별 상담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대·30대 소비자는 헬스장·유틸리티센터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으며 40대·50대 소비자는 의류·섬유, 60대 소비자는 투자자문 상담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판매방법별로는 일반판매가 19,93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국내온라인 거래,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등의 순이며 전년 대비 증감률은 TV홈쇼핑이 10.8%로 가장 높았다.

김진성 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앞으로도 인천시민들이 질 높은 소비자 상담과 피해구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이라며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맞춤형 홍보와 교육 활동을 다양하게 펼쳐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중남/기자



구로구,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올해 총 70억원 용자지원

19일까지 방문신청 ... 중소기업 최대 2억, 소상공인 5000만원 한도 대출

구로구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총 70억원 규모의 용자지원 사업을 펼친다.

구로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반기 57억원, 하반기 13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용자지원 사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용자지원은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시중은행협력자금으로 나눠 실시된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총 40억원 규모, 대출금리는 연 1.5%로 진행된다. 시중은행협력자금은 총 30억원 규모로 대출금리가 연 1.8%를 초과하면 구청이 은행 금리의 최대 연 1%를 보전해준다.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시중은행협력자금 모두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중소기업은 최대 2억원, 소상공인은 5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용자대상은 구로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중소기업과 5인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는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소상공인은 10인 미만의 기준이 적용된다.

단, 사업자 등록을 마친 지 6개월 미만인 업체는 제외된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19일까지, 시중은행협력자금은 매달 초 5일간 접수를 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관련 서류를 구로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후 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용자지원이 경영난으로 힘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업이 행복한 구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미성/기자

2차 재난기본소득 접수 1주일 만에 경기도민 56.3%가 신청해

시군별 신청자 수로는 수원시가 74만3,924명, 비율로는 화성시가 64.9%로 가장 많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설 전에 재난기본소득 지급하려는 정책 시행 취지에 맞아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자 수가 접수시작 1주일 만에 경기도민 절반을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7일 오후 11시까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한 경기도민은 755만9,26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기도 전체 인구 1,343만8,238명의 56.3%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급방식으로 살펴보면 신용·체크카드 신청한 사람은 578만5,986명으로 경기도민이 신청할 수 있지만 경기도민이 아닌 주민이 신청한 수 있지만 경기도민이 신청한 수보다 3.5배 정도 많았다.

신용·체크카드는 경기도 전체 지역 주민이 신청할 수 있지만 경기도민이 신청을 했다"며 "지난 6일과 7일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골목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의 2차 재난기본소득이 골목 상권을 살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온라인 신청, 현장 수령,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등 3가지 방법으로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14일까지 신청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

능하다.

기준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 카드나 시중 12개 신용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현재까지 국민, 기업, 농협, 롯데, 삼성, 수협,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 SC 제1 등 12개 카드사와 협의를 완료했다.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경기도민임을 인증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 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3월 1일부터 시작되는 현장 수령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및 현장 방문 수령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기초생계급여 수령자 등을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한다.

도는 2월 1일부터 7일까지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14만6,761명이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연매출 10억원 이하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업소다.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지역화폐 가맹점일 경우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된다.

최정근/기자

김천시, 상반기 '역대 최대' 4323억원을 본다.

김천시는 지난 2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위축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전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이창재 부시장 주재로 사업부서 팀장이 참석해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계획 설명과 함께 신속 집행률 제고를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시는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액을 역대 최대 규모인 4,323억원 설정했다.

이는 지역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정부안 55.1%보다 5.9% 상향한 61%로 설정하고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운영하며 예산·자금·회계·실시부서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사업규모별 담당제를 시행해 대형 사업에 대한 부진사유를 사전에 파악 해소해 조기착공과 함께 선금 및 기성금 지급을 확대해 집행률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중섭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시민과 소상공인이 절망감을 떨치고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경제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소비·투자분야에 특히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신속집행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세기/기자

경주시 '민생경제 살리기 3대 특별대책' 내놔. 2224억 투입

주낙영 시장, 코로나19 극복 위해 가장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시민체감 민생경제 살리기 3대 특별대책' 발표

경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로 재정지원이 시급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상대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이번 지원은 집합금지 등의 피해를 입은 업종에 99억원을 지급하는 직접 지원과 지역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세금면제, 용자지원, 이자감면 등의 간접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를 부양하는 사업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8일 오전 프레스룸에서 비대면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상황에 내몰린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주시의 가능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는 '시민체감 민생경제 살리기 3대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주 시장이 이날 공개한 '민생경제 살리기 3대 특별대책'은 지자체의 지원이 당장 필요한 업종과 계층에는 우선 지원을 골자로 하는 선별적 지원과, 경주페이 1000억원 발행과 세금감면과 용자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보편적 지원이 모두 담겨있다.

특별대책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피해업소 직접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어려운 이웃 지원 등 3개 분야 15개 사업으로 직·간접적으로 지원되는 금액만 2224억원 규모다.

먼저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받은 업소 9600여 곳에 지원금 99억원이 지급된다.

세부적으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 집합금지 업소 251곳에 200만원을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PC방, 오락실 등 영업제한 업소 9168곳에 1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또 여행사, 이벤트업체, 유스호스텔 등 관광경기 침체로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는 업소 129곳에 100만원을 확진자 동선 공개로 피해 입은 업소 가운데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한 업소 100여 곳에도 5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주낙영 시장은 "필요한 예산은 경주시 자체 재원인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지급방법은 2월 15일부터 2월 26일까지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개인계좌를 통해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1093억원 규모의 직·간접적 지원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세부사항으로는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을 위해 이자 지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지역 내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용 지원 및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등의 지원 사업이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도 '경주시 공직자 행복나눔 캠페인'을 통해 총 5000만원 상당을 기부할 계획이며 주낙영 시장도 이에 동참하기 위해 새해 첫 월급을 전액 기부한 바 있다.

또 경주페이의 연내 발행 규모를 1000억원으로 상향해 지역 경제를 부양할 방침이다.

이어 전 시민 대상 주민세 감면 사업인 대상 농기계 임대료 인하 등으로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다음달까지 확대·연장해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으로 소득이 감소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의 생계비를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시의 3대 특별대책이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기에 충분치는 않겠지만, 험겨운 겨울을 나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에 놓인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방 백리 안에 굶어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경주 최부자택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이어 받아 저소득 위기계층을 돕는 '이웃사랑 행복나눔'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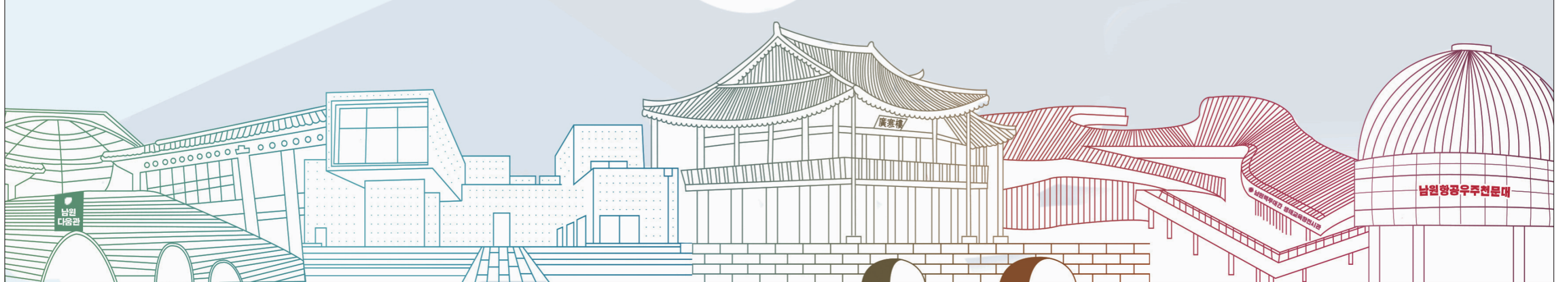
한반식/기자



역사가 살아 숨쉬는 관광·문화도시

그 품격을 더욱 높혀 나가겠습니다



KBS 2TV 월화드라마 [암행어사: 조선비밀수사단] 8, 9일 최종회 앞두고 심박수 자극하는 김명수-권나라의 달콤한 키스신 메이킹 영상 공개!



오는 월요일(8일)과 화요일(9일) 15회와 최종회를 앞두고 찰떡 호흡을 자랑하는 배우들의 모습이 담긴 '암행어사' 13, 14회 비하인드 메이킹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월요일(1일) 방송된 KBS

2TV 월화드라마 '암행어사: 조선비밀수사단'(이하 암행어사/ 연출 김정민/ 극본 박성훈, 강민선/ 제작 아이윌 미디어) 13회가 시청률 13.6%(닐슨코리아 제공, 전국 기준)로 자체 최고 시청률을 또 한 번 경신, 뜨거

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방송에서 어사단은 휘영궁(선우재덕 분)의 역술한 죽음을 밝히고, 배후세력이었던 김병근(손병호 분) 일당을 엄벌하며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했다. 이어 어사단은 관찰사 변학수(장원영 분)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암행길에 나서며 또 한 번의 아슬아슬한 모험을 예고하기도. 이들이 통쾌한 활약을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증이 모이는 가운데, 웃음이 끊이지 않는 13, 14회 비하인드 메이킹 영상이 공개돼 이목을 집중시킨다. (영상 URL=https://tv.naver.com/v/18324912) 먼저 분방송과는 180도 다른 유쾌한 현장 분위기가 눈길을 끈다. 극중 치열한 암투를 벌이던 김명수(성이겸 역)와 박주형(서용 역)은 돌바닥에 드러누운 채 서로에게 팔베개를 해주며 스윗한 면모를 뽐내고 있다. 끈이어 서로를 진하게 끌어안으며 달달한 '반전' 브로맨스를 자랑하기도. 또한 김명수와 이태환이 귀여운 '현실 형제' 케미를 발산,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인다. '어부바' 장면을 촬영하기에 앞서 "이걸이 대리 왔습니다~"라고 능청스럽게 장난을 거는 이태환과, "승차감 아주 좋아"라고 맞받아치는 김명수의 유쾌한 우애가 보는 이들의 입꼬리를 끌어올

리고 있다. 특히 분방송에서 시청자들의 손에 땀을 쥐게 만들었던 어사단과 비리 세력 손병호(김병근 역), 박주형의 맞대면 촬영 현장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쉬는 시간 도중 웃음꽃을 피우며 김명수와 함께 춤을 추는 손병호를 보자, 안내상(장태승 역)이 "옛날에 많이 노셨던 분이네. 제대로 노셨어"라고 장난을 치며 웃음보를 터트린 것. 그러자 하면 박주형은 이이경(박춘삼 역)과의 반전 케미를 자랑, 애교 섞인 말투로 "나도 밝은 거 하고 싶어. 안 맞아!"라고 투정을 부리며 분방송에서는 찾아볼 수 없던 밝은 매력으로 안방극장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한편 설렘 지수를 최대로 끌어올렸던 김명수와 권나라(홍다인 역)의 키스 신의 비하인드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권나라가 추위를 호소하자, 김명수가 그녀의 양팔을 쓰다듬어 주며 다정하고 든든한 '오빠미'를 발산한 것. 카메라가 켜지자 두 사람은 애절한 로맨스에 단숨에 녹아들기 시작, 달콤한 명장면을 완성하며 안방극장의 '심쿵'을 자아내고 있다. 이처럼 '암행어사'는 다채로운 케미를 터트리는 주, 조연 배우들의 완벽한 시너지로 '폼철' 드라마를 완성하며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전순희기자

"다른 여자가 가슴 차지" 전노민 외도 고백, 전수경 "몸만 가"(결혼 작가 이혼 작곡)

전수경이 외도 사실을 고백하는 전노민에게 이혼은 없다고 못박았다. 2월 7일 방송된 TV조선 주말드라마 '결혼작사 이혼작곡'(극본 피비(임성한) / 연출 유정준, 이승훈) 6회에서는 아내 이시은(전수경 분)에게 외도를 고백하는 박해륜(전노민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박해륜은 술에 취해 귀가해 "태어나서 한 여자 한 남자하고만 살다가는 거 아닌데"라며 "나 실은 만나는 사람 있다"고 고백했다. 박해륜은 "단지 오래 살았다는 이유가 아니라 이시은은 말고도 다른 사람이, 다른 여자가 내 가슴 속을 차지했다"고 재차 자신의 외도를 밝혔다. 이에 이시은은 분노했다. 이시은은 학생 가르치는 교수라는 사람이 불륜을 저지른 것, 그레놓고 자신의 손목

파스 냄새 핑계를 댄 것을 따지며 "우리가 고생하고 산 세월이 이것밖에 안 되냐"고 물었다. 그러나 박해륜은 "세상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라며 "항기(전해원 분)이랑 우람(임한빈 분)이 평생 나 안 본대도 어쩔 수 없다"고 확고한 이혼 의사를 전했다. 그러나 이시은은 "가는데 몸만 가라"며 자신은 이혼해줄 생각이 전혀 없음을 드러냈다. 이시은은 자신의 결혼 생활이 절단나도 애들을 위해 부부 관계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애들만 눈치 못 채게 하고 싶은 대로 지내라. 나한테 내 자신보다 박해륜보다 아이들이 소중하" 두 박해륜도 그래야 한다. 나나 그 어떤 여자보다 내 자식들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최만식기자



안정환 "날 길들인 건 히딩크와 이혜원뿐"...

김성주·김용만 "축구편에서 서로 마음 고생 많았다" 증언



'몽쳐야 찬다'의 감독이었던 안정환이 사제지간(?)이었던 허재와 서로 입장이 바뀌게 됐다. 지난 7일 방송된 JTBC 예능 '몽쳐야 찬다' 첫편에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 몽친 전설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감독에는 허재가 자리했고 코치는 현주엽이 임명돼 '전설들'과의 농구대잔치를 예고했다. 이날 허재는 감독으로 임명돼 꽃목걸이를 하고 코치 현주엽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농구팀원들을 기다렸다. 하지만 자신의 전 감독이었던 안정환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자 안쪽의 험로가 바로 예상이나 뒷 머리를 부여잡았고, 급기야 사레까지 걸려 보는 이들로 하여금 웃음을 짓게 했다. 실제로 안정환은 '몽쳐야 찬다' 촬영 당시 전 농수 선수 허재를 강한 카리스마로 지도, 훈련시킨 바 있다. 예상치 못한 안 전 감독의 입단에 김성주와 김용만은 "팩트를 얘기하자면 안정환이 안 하겠다고 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축구 근육과 농구는 쓰는 근육은 다르다고 말해 '같이 못하는구나 싶어' 섭섭해 했다"라고 뒷 이야기를 풀었다. 또한 안정환은 "그나저나 괜찮겠냐. 나를 길들인 사람은 혜원이와 히딩크 밖에 없다"라며 시작부터 감독 허재에게 경고장을 날렸다. 하지만 허재는 "정환이보다는 내가 더 야생마다"라고 말하며 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려했지만, 야생마를 '야생마'라고 말하는 등 말까지 더듬어 누가봐도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에 안정환은 "이 관 재밌게 멘트를 던졌다. 이를 들은 김성주와 김용만은 "이제와서 얘기하지만 허재와 안정환은 (함께 축구를 하며) 마음고생이 심했다. 훈련할 때 서로 실용이 많았다"라며 입장 차이를 말했다. 한편, 감독으로 승격(?)된 허재는 "정환이부터 발금 견여라. 말말 안 들을 것 같다"라고 말하며 시작부터 무리수를 던지며 안정환을 당황케 만들었고, 이를 지켜보던 이들은 앞으로 펼쳐질 둘의 꿀케미에 기대감을 더했다. 최재은기자

'1호가 될순 없어' 박준형 "김지혜, 원래 예뻐다" 심쿵주의보

박준형과 김지혜는 임혁필과 권진영을 만나 과거 에피소드를 꺼내놓으며 입담을 자랑했다. 특히 로미오와 줄리엣 같았던 갈갈부부의 연애사가 귀를 기울이게 했으며 김지혜를 처음 봤을 때 입었던 옷과 신발을 다 기억하는 박준형은 "사람들이 다 김지혜 수술해서 예뻐졌다고 하는데 원래 예뻐다"라고 말해 보는 이들을 심쿵하게 만들었다. 임혁필이 함께 활동했던 당시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공연 포스터를 공개, 모두가 추억에 젖어들었다. 임혁필과 권진영의 영상 콘텐츠를 도와 주러 온 갈갈부부는 '개그콘서트'의 인기 코너였던 '대단해요'의 선생님 과 전학생으로 참여해 여전한 개그 감각으로 웃음을 선물했다. '팬현숙'은 부부지침서를 읽으며 변화된 모습을 꼽았다. 두 사람은 존댓말을 사용하고 1분 동안 포옹하는 등 책에 나온 대로 따랐으나 말만 존댓말일 뿐 여전히 간격거리는 최양락과 어딘가 공포스러운(?) 팬현숙의 대화가 시선을 끌었다. 직접 만든 만둣국을 먹은 최양락이 팬현숙의 음식솜씨를 칭찬하거나 팬현숙이 최양락에게 반찬을 올려주며 훈훈한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또 다시 티격태격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팬락부부의 눈 뜨고 코베이는 웃놀이가 흥미를 배가시켰다. 전순희기자

박준형과 김지혜는 임혁필과 권진영을 만나 과거 에피소드를 꺼내놓으며 입담을 자랑했다. 특히 로미오와 줄리엣 같았던 갈갈부부의 연애사가 귀를 기울이게 했으며 김지혜를 처음 봤을 때 입었던 옷과 신발을 다 기억하는 박준형은 "사람들이 다 김지혜 수술해서 예뻐졌다고 하는데 원래 예뻐다"라고 말해 보는 이들을 심쿵하게 만들었다. 임혁필이 함께 활동했던 당시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공연 포스터를 공개, 모두가 추억에 젖어들었다. 임혁필과 권진영의 영상 콘텐츠를 도와 주러 온 갈갈부부는 '개그콘서트'의 인기 코너였던 '대단해요'의 선생님 과 전학생으로 참여해 여전한 개그 감각으로 웃음을 선물했다. '팬현숙'은 부부지침서를 읽으며 변화된 모습을 꼽았다. 두 사람은 존댓말을 사용하고 1분 동안 포옹하는 등 책에 나온 대로 따랐으나 말만 존댓말일 뿐 여전히 간격거리는 최양락과 어딘가 공포스러운(?) 팬현숙의 대화가 시선을 끌었다. 직접 만든 만둣국을 먹은 최양락이 팬현숙의 음식솜씨를 칭찬하거나 팬현숙이 최양락에게 반찬을 올려주며 훈훈한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또 다시 티격태격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팬락부부의 눈 뜨고 코베이는 웃놀이가 흥미를 배가시켰다. 전순희기자

우승하면 본인 명의의 카드를 요구한 최양락이 웃놀이의 규칙을 모르는 팬현숙을 속여 가며 자신에게 유리하게 경기를 운영해 나간 것. 하지만 최양락이 이기자 팬현숙이 판을 열어버리는 반전 엔딩으로 예측 불허한 팬락부부의 케미스트리가 재미를 더했다. 이은형은 제주도에서 주택생활을 제안한 강재준의 꿈을 깨기 위해 심효부부를 찾아갔다. 이강부부는 심효부부 주택 1층에서 지내기로 했고 미리 이은형의 부탁을 받은 심진화는 일부러 주택의 단점을 얘기했다. 두 부부는 층간 소음 문제로 대화하거나 음식을 주고받으며 집주인과 세입자로 변신했다. 강재준에게 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고 수도 동파 방지 관리를 시키며 주택살이를 포기하게 하려던 심진화는 그가 요리한 저녁식사에 반해 본인의 역할을 잠시 망각하기도 했다. 온갖 일을 다 했던 강재준은 하루의 마무리로 분리수거를 하던 중 인내심이 폭발, 심효부부 몰래 집을 싸서 도망가 시트콤 같은 이강부부의 주택 체험기가 웃음을 자아냈다. 보편 불수록 빠져드는 각 부부들의 일상은 매주 일요일 오후 10시에 방송되는 '1호가 될 순 없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순희기자

'철인왕후' 신혜선, 절정으로 치닫는 '변화무쌍 열연'

'철인왕후' 신혜선의 변화무쌍한 열연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신혜선은 tvN 토일드라마 '철인왕후'에서 차원이 다른 활약으로 명품 연기력을 선보이고 있다. 능청스럽고 코믹한 행동부터 감정을 향한 설레면서도 혼란스러운 감정 변화, 상황에 따라 급변하는 눈빛까지 인물의 감정을 자유자재로 오가는 신혜선의 유연한 완급조절은 드라마를 보는 이들을 전율케 한다. 현대 남성의 영혼이 깃든 조선시대 중전의 다이나믹한 모습을 설득력 있는 연기로 담아낸 신혜선의 열연에 극찬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신혜선은 TV화제성 분석 기관 굿네이버코퍼레이션이 발표한 드라마 출연자 화제성 부문에서 2주 연속 1위에 이름을 올렸고, '철인왕후'는 드라마 화제성 1위에 등극하는 기염을 토했다. 드라마의 최전선에서 극을 이끌어가는 '민보배' 신혜선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 셈이다.지난주 방송된 '철인왕후' 17, 18회에서는 신혜선의 톨러코스터 급 감정 변화와 함께 처절한 오열 연기가

극을 장악했다. 극 중 김소용(신혜선 분)은 상상지도 못한 회임 소식으로 혼란스러워하며 또다시 정체의 위기를 넘어선 좌절감을 느낀 것도 잠시, 절종(김정현 분)의 진심 어린 마음에 힘을 얻어 자발적으로 태교에 힘쓰기 시작했다. 자신이 잠든 사이 민란을 잠재우기 위해 궁궐을 떠난 절종을 걱정하며 온종일 철중 생각으로 가득 찼던 김소용이었다. 그런 김소용에게 갑작스러운 절종의 승하 소식은 믿을 수 없는 충격에 빠트렸고, 그를 떠올리며 오열하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다. 이후 절종의 시체가 가짜로 꾸며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소용은 살아있는 절종을 찾기 위해 궁을 탈출한 가운데 김명빈(나인우 분)에게 정체를 밝히기 위해 목숨을 위협당하는 엔딩이 펼쳐져 절절한 긴장감을 드러냈다. 이처럼 신혜선은 감정의 기복이 큰 캐릭터의 변화 과정을 섬세하고도 밀도 높은 연기력으로 그려내고 있다. 신혜선의 빈틈없는 열연이 더욱 돋보이며 연일 시청자들의 호평을 이끌어

내고 있는 상황. 마지막까지 단 2회만을 남겨둔 '철인왕후'에서 그가 어떤 결말을 만들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철인왕후'는 매주 토, 일 밤 9시에 방송된다. 정동희기자

